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realty.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보스톤 최고의 한식당 선정 치열한 경쟁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6가지〉 6, 7, 8 면

오는 10월 9일까지 3주간 투표 연장  
기존의 항공권에 쿠키밥솥,  
티보엔티비 1년 시청권까지 상품 보강  
우편 투표에 이어 이메일 투표도 허용키로



보스톤코리아가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진행중인 보스톤 최고 한식당 공모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코리아가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진행 중인 보스톤 최고 한식당 공모전에서 약 4-5 개의 식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현재 약 230여명의 독자가 응모했다.

보스톤코리아는 현재 경합하고 있는 식당들의 차이가 불과 1-2표차로 근소하고 충분한 투표자의 수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초 18일 투표 마감을 3주 연장키로 했다. 또한 전격적으로 이메일 투표도 허용키로 했다. 보스톤코리아 측은 "선정에 있어 변별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연장한다.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 밝혔다.

투표는 오는 10월 9일 금요일자 소인까지 연장된다. 기간 연장에 따라 2등 상품으로 기존의 애플워치 외 쿠키전기밥솥(6인분), 티보엔티비 1년 시청권 등을 보강했다. 1등상은 여전히 한국행 비행기 왕복항공권(비수기)이 증정된다.

14일 현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식당과 10위의 한식당의 표차가 20여 표에 불과해 아직까지 정확한 변별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태다. 42개 식당을 상대로 한 투표에서 10표 이상을 득표한 식당이 무려 19개다. 그만큼

여러 식당으로 표가 분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현재 최고 득표 식당은 40표를 획득한 상태다.

한식당 투표 참여방법은 신문의 광고의 응모지를 오려서 보내거나 인터넷 광고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보스톤코리아 주소로 보내면 된다. 또한 인터넷에서 응모용지를 다운 받아 bostonkorean@hotmail.com 이메일로 응모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서 보내면 된다. 특히 이메일 응모시 선정한식당 2곳, 이름, 주소

## 전직 주한 미대사 보스톤 좌담회

한국 시사 10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김구 재단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동 후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한국 시사 10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로 전직 주한 미대사들을 모아 좌담회를 갖는다.

캠프리지 소재 싸이 강당(Tsai Auditorium S010, CGIS South Building)에서 열리는 좌담회에는 전직 주한 미대사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1997 - 2001), 캐서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2008 - 2011) 와 성 김(Sung Kim, 2011-2014) 이 함께하며 캐서린 문(Katharine Moon)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문 교수는 웨슬리 칼리지 정치학 교수 및 아시안 연구 학과장이다. 문 교수는 현재 한국 연구 선임 연구원이자 SK-한국 국제 교류 재단 위원장을 맡아오고 있다.

이 행사에 참석하기 원하는 한인들은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무동산 매매·무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sung.com



From \$978  
ONLY 1 STOP (뉴욕 경유)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위의 \$978은 아시아나항공(국내선·유나이티드항공)요금입니다.  
2015년 11월 30일까지,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한해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또한 발권일은 9월 30일까지이며, 예약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a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onjasa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벤슨 리 감독 연출의 영화 '서울 서칭' 은 영화 배우 차인표 외 저스틴 전, 제시카 반 등이 출연한다

## 보스톤 아시안 영화제 한인2세 감독 작품 2세들의 한국 방문기 <서울 서칭> 주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한인 재미교포 2세 벤슨 리 (Benson Lee) 감독이 제작한 영화 '서울 서칭 (Seoul Searching)' 이 보스톤 아시안 아메리칸 필름 페스티벌 (BAAFF)을 통해 오는 10월 22일 캠프 브리지 소재 Brattle Theatre에서 상영된다.

'서울 서칭' 은 미국, 독일, 멕시코 등에서 태어난 해외한인 자녀를 대상으로 모국의 역사와 문화 체험을 위해 1986년에 한국 정부가 주최한 서울 여름학교에 참여한 10대의 재미교포 소년소녀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서울 서칭' 은 영화배우 차인표, 저스틴 전, 제시카 반 등 아시안 배우

들이 출연하는 영화이다.

보스톤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는 보스톤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행사이며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Paramount Center (Emerson College, Boston) 와 Brattle Theatre에서 개최된다.

보스톤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에서는 '서울 서칭' 에 이어 24일 아서 동 (Arthur Dong) 감독의 'The Killing Fields of Dr. Haing S. Ngor' 와 25일 미라 심한 (Meera Simhan) 감독의 '미스 인디아 아메리카 (Miss India America)' 의 상영이 이어진다.

보스톤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 티

켓 구매는 BAAFF 웹사이트 (baaff.org)에서 가능하며 10월 5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스톤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에 자세한 정보는 baaff.org 와 BAAFF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events/16725460929895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서칭 (Seoul Searching)**  
일시: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Brattle Theatre : 40 Brattle St in Harvard Square, Cambridge, Massachusetts 02138

jham@bostonkorea.com

## 선정 결과는 10월 16일 발표 예정 보스톤코리아 지면과 웹을 통해 공개

▶1면에 이어서

, 전화번호, 이메일 요건 중 1개라도 빠지는 경우 한식당 추천표 및 경품 추첨 모두에서 제외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달 9일까지 총집계된 최고 한식당 선정 결과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21일 개최되는 보스톤코리아 10주년 기념만찬에서 수상한다. 상품 선정 결과도 16일자 보스톤코리아 지면과 웹사이트를 통해 동시 공개된다.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대표는 "이번 한식당 선정은 보스톤 한식당

에 대한 한인들과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더 좋은 한식당 발전을 위해 계획한 것" 이라고 밝히고 "많은 독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보스톤코리아는 내년에는 한인회와 공동으로 최고 한식집 선정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한인회와 추후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ditor@bostonkorea.com

## 절전형 '전구' 보스톤코리아 사무실 픽업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2주 전부터 에너지 절약 패키지가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에서 직접 픽업이 가능해졌다.

보스톤코리아는 이에 따라 보스톤코리아 사무실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에서 신청자들에게 절전형 전구 (전구 1개)를 배포하는 중이

다. 무료 절전형 전구는 지난 6월 보스톤코리아에 신청 접수한 사람만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보스톤코리아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이다.

jham@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물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팅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브라질 케라틴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스레딩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펌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핸들링)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피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샵

##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문화식물원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제 5회 NE 대학 동문연합 친선 골프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대학 동문회 연합은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Stow 소재 Stow Acres Country Club에서 제5회 친선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

경쟁보다 화합을 추구하는 이 대회는 뉴잉글랜드에 거주하는 각 대학 동문 및 재학생들과 미국 대학 동문들과의 친선도모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서강대학교 동문회가 주최한 작년 대회에는 총 11개 대학동문 44명이 참석하여 친목을 가졌다. 올해는 연세대학교 동문회(회장 김준구)가 주관하며 시상 및 상품은 골프 초보자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다.

김 회장은 "이번 대회에 고국 대학은 물론 미국대학 동문 및 재학생들도 환영한다" 고 전했다.



행사에 대한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김 회장(617-448-7156/steveki-meagle@gmail.com)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행사일정**  
일시 :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Tee Off 12:30)

장소 : Stow Acres Country Club, South Course  
58 Randal Rd, Stow, MA 01775,  
Tel: 978-568-1100  
참가비 : \$100 (카트, 간식 및 저녁식사 포함)  
bostonkorean@hotmail.com

## 과기협 연례 골프대회 26일 개최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과학기술자 협회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이현희)에서 주최하는 가을 정기 골프대회가 오는 9월 26일 토요일 오후 12시30분 Stow Acres Country Club에서 열린다 (체크인:11시00분).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미 과학기술자 협회 뉴잉글랜드 지부 사이트(www.kseane.org)를 통해 9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 및 FAQ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contact@kseane.org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9월 26일 (토) 12시30분 Shotgun (11시 부터 체크인 및 규정 설명, 사진 촬영)  
장 소 : Stow Acres CC, South

Course, 58 Randall Road Stow, MA 01775  
참가비: 개인 \$100, 부부동반 \$180 (카트, 점심, 저녁, 그리고 과기협 멤버십 (35불) 포함)  
경품: 푸짐한 경품 및 상품  
홀 스폰서 (1구좌 100불): 각 홀에 스폰서 소속과 성함을 게시함.  
bostonkorea@hotmail.com

## NE 서울대 동창회 가을 아우회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구 서울대학교동창회(회장 이의인)는 지난 12일 토요일 뉴튼 소재 어번데일 파크 (Auburndale Park)에서 가을 아우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아우회에는 55학번부터 03학번까지의 50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점심 식사를 하면서 친목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임원 및 집행부로서 봉사할 임원진들을 인준하였다. 새로운 임원진으로 부회장에 홍지복 (

간70입), 감사에 김선혁 동문(약59입), 총무에 노동완 (공84입), 기획에 도삼주 (공 84입), 진행에 조진행 (공90입), 회계에 김제성 (공87입), 음악에 김유경 (음72) 동문이 선출됐다. 또한 이제봉 (공72)과 박세홍 (공75)동문이 신입 이사로 영입되었다.

이어서 동문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물 풍선 던지기, 배드민턴, 제기차기 등 유쾌한 게임을 즐겼다.

bostonkorean@hotmail.com

## 주한 미 대사들의 견해 들을 기회

▶▶1면에 이어서

https://goo.gl/a9chXi 에서 가능한 빨리 참석여부를 예약해야 한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정권에서 일을 했던 주한미 대사들의 견해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김구 재단과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벨퍼 센터가 공동으로 후원을 한다.

전직 주한 미대사 좌담회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웹사이트

(http://korea.fas.harvard.edu/events/2015/08/31/us-republic-korea-ambassadors-panel)에서 알아 볼 수 있다.

**행사일정**  
일시 :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Tsai Auditorium (S010), CGIS South Building, 1730 Cambridge Street, Cambridge MA 02138

jham@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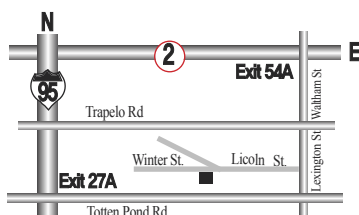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 SAT Plus

##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12, 2015

Class	Time
PSAT / SAT Prep ( New )	9:00 AM – 11:00 AM Saturday
SAT Prep ( Old )	1:00 PM – 3:00 PM Saturday
PSAT /SAT Prep	3:30 PM – 5:30 PM Saturday
<b>Individual Tutoring</b>	<b>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b>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제3회 예술협회 미술전 및 김남희 초대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는 제 3회 예술협회 미술전 및 김남희 작가의 초대전을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17일까지 렉싱턴 소재 Lexington Arts & Craft Society 에서 개최한다.

김남희작가는 1970년대 보스톤 지역에 한국 도자기가 알려졌을 때부터 한국 도자기 기술을 알리고 있다. 보스톤 지역 주요 박물관과 도예 작업소에서 한국 도자기 분청기법 강의와 함께 시범을 보였으며 하버드 대학교 도자기 프로그램의 레지던스 작가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작가는 15세기와 16세기의 한국 분청 도자기를 현대적으로 재생시킨 작가로 작품은 물고기와 연꽃 문양의 접시, 꽃으로 둘러싸인 꽃병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김 작가 초대전의 리셉션은 3월 2시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40여년 도예가 김남희씨 초대전을 개최한다

부터 4시이다.

이어 제3회 예술협회 미술전 행사로 2014년 파블로 카잘스 콩쿨에서 우승한 문태국씨의 첼로 독주회가 오는 10월 16일 브루클라인소재 세인트 폴 교회에서 연주될 예정이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 10월 17일 토요일

장소: 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 : 13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문의: (781) 862-9696

jham@bostonkorea.com

# 보스톤 체육회 이학재 회장 선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체육회(조형구 전 회장) 2015-2017년 임기의 회장으로 전 태권도 협회 회장을 지낸 이학재 사범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학재 회장은 없어졌던 보스톤 축구회를 2002년에 다시 시작한 장본인이며 보스톤 한인 축구대회를 개최한 선구자이다. 현재 보스톤 한인 야구리그에 올스톤 슬레머스 팀 단장을 2년째 연임하고 있으며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이 회장은 매년 광복절 한인 체육대회에 팀을 구성해 참가하며 야구와 태권도 종목에 출전해 체육회일을 도왔다. 이 회장은 “보스톤과 뉴잉글랜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다른 스포츠 선수들의 모임을 위해 힘써볼 생각” 이



보스톤 체육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학재 사범

라며 “보스톤 체육회에 모든 한인들과 체육인들의 큰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 고 전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스포츠 단체장들과 연락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스톤 체육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학재 회장 (617-852-0400)으로 연락하면 된다.

jham@bostonkorea.com

# 보스톤 산악회 제16차 정기산행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회장 현정원)가 오는 26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제퍼슨(Mt. Jefferson)으로 16차 정기산행을 간다.

산행은 각각 왕복 6.7마일 A조(Caps Ridge trail-The Link- Castle trail loop)와 5마일 B

조(Caps Ridge trail)로 각각 나뉘어 진행되며 산행시간은 A조가 5시간 30분이며 B조가 5시간이다.

마우튼 제퍼슨의 높이는 대략 5716피트이며 오름 높이는 2707피트이기에 난이도는 중상급 정도이다.

준비물은 배낭과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간편 중식이며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집결지는 올스톤 공영주차장(오전 6시)과 Park&Ride Exit2 of RT93(오전 6시 45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617-869-5157로 하면 되며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산악회 카페 웹사이트 (cafe.daum.net/bostonmountaineer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행일: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집결지: 올스톤 공영주차장 오전 6시

Park&Ride, Exit2 of RT93 오전 6시 45분

bostonkorean@hotmail.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http://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뭇잎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지난 12월 제4회 교내 교사연수회, 2015학년도 신입생 환영회 및 반배정 행사를 마쳤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 4회 교내 교사연수회 및 신입생 환영회 성료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함요한 기자 = 오는 9월 19일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이사장 윤경숙)는 지난 12일 토요일 제 4회 교내 교사연수회, 2015학년도 신입생 환영회 및 반배정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제 4회 교사연수회의 1부 순서는 김희현 교사의 사회와 남일 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전체 강연으로 '좋은 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교안 작성법 및 효율적인 판서법' (남일 교장), '멀티미디어 활용 및 제작법' (이지훈 강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주제별 교수방법과 역사문화수업 방안' (김소희 강사), '2015재외동포재단 초청 해외한글학교 교사연수 보고와 역사문화 자료 나눔' (김영순 강사), '구미가 당기는 음악교육' (김세영 강사), '어려워하는 글쓰기, 이런 방법으로 요령 것 지도하자' (유미선 강사) 등이 이어졌다.

이날 연수회에는 성요한 한국학교와 밀알

한국학교 선생님들도 참여하여 새 학기를 준비하였다. 이어 2부 순서인 2015학년도 신입생 개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김영순 교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학부모와 신입생들이 함께 행사에 참석해 첫 일정을 둘러보았다.

이어 각 단계별로 인터뷰 및 반배정 순서를 가진 후 이날 행사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총 여섯 과정의 41가지의 오전반과 태권도, 미술, 서예, 발레, 사물놀이, 펜싱, 골프, 장구 등 오후 특별활동반 모두 49 반으로 구성되어있다. 신입생들은 각 반별로 반배정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전체 개학일인 19일부터 수업에 들어간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관한 문의는 남일 교장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또는 학교 홈페이지(www.koreanschool-ne.org)를 통해 연락을 할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 법륜스님의 정토불교대학 가을학기 개강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함요한 기자 = 법륜스님의 영상강좌를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토불교대학의 가을학기가 오는 10월 3일 토요일 개강해 인원을 모집 중에 있다.

보스턴 열린법회의 이미경 씨는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깨우쳐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공부를 하면서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한다" 고 전했다.

보스턴 렉싱턴에서는 작년 세계 100회 강연으로 매월 법회가 진행되고 있다.

가을학기 강의모임의 구체적인 시간과 요일은 추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열리는 법륜스님의 강의안은 총 1년 과정으로 1학기(실천적 불교사상, 부처님의 일생)와 2학기(근본 불교, 불교변천사)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명상 수련, 환경 및 복지, 통일에 대한 특강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정토불교대학의 가을학기



법륜스님의 영정토불교대학의 가을학기가 오는 10월 3일 토요일 개강한다

등록은 다음 링크(<http://goo.gl/vIfPPz>)를 통해 할 수 있다. 정토불교대학의 가을학기 오리엔테이션은 10월 3일 토요일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학력 제한 없음)이다. 입학금은 12만원이며 수업료는 무료다.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스턴 열린법회 (bostonjungto@gmail.com)로 하면 된다.

jham@bostonkorea.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희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http://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6 가지



## 인터넷 신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인터넷을 신청할 때는 보통 번들 패키지(Bundle Package) 플랜이 가장 눈에 띄지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플랜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일단 TV에서 채널 50개가 필요하지 않거나 유선전화선을 쓰지 않는 경우 굳이 패키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넷만 설치할 수 있는 플랜도 다양하다.

인터넷을 신청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신청하는 요금의 정규 요금인지, 특별 세일(promotion)요금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8~9월 기간에는 학생들의 유입에 따른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별 패키지 상품을 내놓거나 신규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곤 한다. 이러한 특별 상품은 일정 기간(3개월~6개월)이 지

나면 정규 요금으로 금액이 인상된다 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회사들은 보통 프로모션이 끝나는 경우 가격을 올리거나 인터넷 속도를 낮추는 알뜰한 상술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방법은 보통 프로모션을 1년계약시 6개월만 제공하고 2년의 경우 1년, 3년의 경우 2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 작은 글씨로 된 글자들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고 할인 기간이 계약기간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인터넷 신청시 케이블TV와 패키지 플랜으로 권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요리나, 골프, 스포츠 등 특정 TV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굳이 케이블 TV를 선정을 할 이유는 없다. 또한 이 같은 채널도 스마트 TV(Smart TV) 나 애플 TV(Apple TV)를 통해 개별 채널별로 구입할 수 있다. 지역 방송이나 풋볼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은 40불짜리 디지털 안테나를 구입해 설치하면 고화질로 TV를 관람할 수 있다.

보스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회사 들로는 RCN, Comcast(1-800-266-2278), Verizon(888-791-0111) 등이 있다. 버라이즌의 경우 한국어 서비스(877-243-8808)가 제공된다.

### 버라이즌 (FIOS)

버라이즌의 인터넷 FIOS 의 경우 3명~4명의 가족에 가장 적합한 50/50 Mbps 플랜은 다수의 기기에서 동시에



게임, 음악 다운로드, 영화 스트리밍 등이 가능하다. 50/50 Mbps 플랜은 2년 약정시 매달 \$65이며 세금, 기기료 및 기타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과 TV, 전화기를 번들 패키지로 동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TV 2 가지의 패키지와 25/25 Mbps의 인터넷과 집 전화기를 포함한 플랜은 2년 계약으로 매달 \$80이며 세금, 기기료, 기타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버라이즌 경우 온라인으로 플랜을 신청할 경우 개통비(Activation Fee)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 Comcast (Xfinity)

현재 컴캐스트의 인터넷 Xfinity는 인터넷만 설치할 경우 1년 계약으로 매달 \$30(세금, 기기료 및 기타 수수료 별



도)에 25Mbps(Performance)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플랜의 경우 가족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다. 이어 50Mbps(Blast)의 인터넷은 \$40의 가격에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컴캐스트의 번들 패키지 플랜(인터넷 플러스)으로 TV 와 케이블 서비스(HBO)를 포함해 매달 \$40(세금, 기기료 및 기타 수수료 별도, 1년 계약)에

25Mbps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플러스 플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인터넷 프로 플러스는 매달 \$50(세금, 기기료 및 기타 수수료 별도, 1년 계약)에 75Mbps의 인터넷과 45개 이상의 티비 채널과 케이블 설치 가 가능하다.

### RCN

RCN의 경우 가장 저렴한 가격의 플랜을 자랑한다. RCN의 인터넷 플랜은 10 Mbps 가 \$30, 50 Mbps 가 \$35, 110 Mbps 가 \$40로 계약 없이 설치 가능 하다.

RCN 번들 패키지 또한 다양하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플랜은 Triple Play 플랜으로 매달 \$55에 50 Mbps 인터넷과 50개 이상의 TV 채널과 미국 전국 어디라도 통화가 가능한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Yelp.com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RCN은 가장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이지만 AS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고, TV의 경우 스크린이 작동이 안돼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2일에서 3일 정도 기다려야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7면으로 계속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6가지



▶▶6면에 이어서

## 휴대폰 개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스마트폰 구입은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 호갱님(호구 + 고갱)이란 말이 생겨난 것은 그만큼 스마트폰 및 핸드폰 구매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스마트폰 구입시 전화기와 요금제(Plan)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한국에서 구입 경험을 가진 독자라면 대부분 안다.

미국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살이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통신사를 찾아야 한다. 특히 문자와 통화 사용이 제

한 되어있는지, 가족들과 같이 할 경우 어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는 지 등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어 스마트폰의 경우 데이터(Data)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살살이 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보통 요금제의 구성은 데이터, 전화 사용(통화 및 문자) 두 가지에 스마트폰 요금이 더해진다. 2년동안 이동통신사들과 약정할 경우 아이폰의 가격은 약 200불만 지급하면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전화사용요금은 상당히 비싸진다. 2년 만기 이전 해지 시에는 위약금 부담이 있다.

최근 들어 2년 약정제가 많이 사라지고 전화할부 구매 또는 전액 구매를 한 후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약

정제를 없애버린 버라이즌이 대표적인 예이다. 할부 시에는 월 할부요금이 매월 부과된다.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은 없지만 남은 할부 잔금을 한꺼번에 치러야 하므로 2년 계약이나 다름없다.

스마트폰 가격 + 데이터+ 전화사용 요금제를 모두 함께 꼼꼼히 따져보면 할부 구매의 경우가 약정제보다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마트폰 구매시 보스톤 새내기들은 또하나의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와 크레딧 조화가 그것이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신분증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요구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I-20, SSN 등을 준비해서 가져야 한다. SSN가 없거나 크레딧 스코어가 낮은 경우 휴대폰 가격에 따라 보증금(Deposit)을 지불한 후 개통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휴대폰 계약이 만료된 후 돌려 받을 수 있다.

SSN도 없고, 보증금을 내기도 싫다면 선불폰(pre-paid phone)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불폰은 일반 휴대폰에 비하여 통화 요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통화량이 적고 단기간 동안만 머물 사람에게 적절하다. 미국의 선불폰 서비스 통신 회사들로는 부스트 모빌(Boost Mobile), 버진 모빌(Virgin Mobile), 메트로 PCS(Metro PCS) 등 다양하다.

무료로 개통이 가능하고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을 무료로 Unlock 시켜준다. 부스트 모빌은 계약제가 없으며 SSN 나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 스마트폰만 소유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 MetroPCS

메트로 PCS(www.metropcs.com) 또한 가입시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요구하지 않으며 개통비도 무료이다. 메트로 PCS는 한달 \$45으로 2기가 데이터(4기가 \$60)의 무제한 문자,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50불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국과 200분 통화, 200문자, 200메가 데이터 사용이 무료다. 한국과 통화가 잦은 사람은 메트로



PCS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핸드폰을 핫스팟으로 사용하는 테더링(Tethering)의 경우 5기가 이하 요금제(Plan) 가입자는 한달에 1기가 데이터당 5불에 구입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5기가 이상의 플랜인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메트로PCS는 계약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약 기간 전에 전화를 해약할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early termi-

▶▶8면으로 계속

### 부스트 모빌(Boost Mobile)

부스트 모빌(boostmobile.com)은 현재 가장 저렴한 플랜을 자랑하고 있는 선불폰 회사이다. 부스트 모빌은 한달 \$35에 1기가 바이트 데이터(5기가 \$45, 10기가 \$55)의 무제한 통화, 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부스트 모빌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6 가지

▶▶7면에 이어서

nation fee)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학기 중에 메트로PCS를 사용하고 방학 때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에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다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다면 재개통 수수료(reactivation fee)도 무료이다. 대신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메트로PCS에서는 스마트폰 가격이 \$29에 시작하며 매달 플랜에 가격이 더해진다.

메트로 PCS에서는 아이폰을 구입할 수 없지만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다면 Unlock를 한 후 메트로 PCS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메트로 PCS는 스마트폰 Unlock 을 하지 않는다.

휴대폰은 다른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서 구입할 수도 있다. 직접 매장을 찾아가 구입할 경우 베스트바이(BestBuy)나 코스트코(Costco) 비제이(BJ)같은 매장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이 지역에서 서비스 하는 이동통신 회사들은 버라이즌 (Verizon), 에이티앤티(AT&T), 티모빌(T-mobile) 등이 있다. 각 대리점과 매장의 위치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AT&T

에이티앤티(att.com/wireless)는 미국내 99%의 통신 가능지역을 자랑한다.

에이티앤티가 제시하는 최고의 개인 요금플랜은 \$70(세금 별도)로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그리고4기

Data	T-Mobile	Sprint	Verizon	AT&T
1GB or Less	\$50	N/A	\$45	\$50
2GB-4GB	\$60	N/A	\$60	\$65
5GB-10GB	\$70	N/A	\$95	\$95
10GB+	\$80	\$65	\$115	\$145
	Unlimited	Unlimited	15GB	3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바일쉐어밸류플랜(Mobile Share Value plan)이다.

에이티앤티의 모바일쉐어밸류플랜은 가족이 사용하기 적합하다. 월 15기가 데이터 요금이 \$100이며 무제한 통화 및 문자를 할 수 있는 라인 요금이 전화기 1대당 \$15이다. 따라서 2인 가족으로 15기가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전화 2대에 따른 라인 요금 \$30이 더해져서 월 요금이 130불이 된다. 여기



에 전화기 할부금액을 더하면 월별 가족 무선전화요금 결정된다.

15기가 이하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전화 1대당 무제한 통화 및 문자 요금은 \$25이다. 따라서 가족 요금제를 선택하는 독자들은 15기가 이상

의 데이터 플랜을 선택하도록 권장한다.

에이티앤티의 데이터요금은 30메가가 월\$20, 2기가 \$30이다. 핸드폰을 핫스팟으로 사용하는 테더링은 과거에 비해 훨씬 쉬어졌고 비용도 저렴해졌다. 에이티앤티 모바일쉐어밸류플랜 또는 DataPro5GB플랜에 가입한 경우 핸드폰을 핫스팟으로 사용 가능하다.

### Verizon

버라이즌(verizonwireless.com)은 미국내 97%의 지역에서 통신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모든 4G 데이터가 LTE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빠른 데이터 전송을 자랑하기 때문에 여행이 잦으며 빠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버라이즌을 선택해야 한다.

버라이즌의 경우 단말기 구매를 일시불로 할지 아니면 24개월 할부 형식으로 구매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약정제가 사라지면서 단말기 지원의 개념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할부 형식으로 구매할 경우 2년 무이자 할부 금액이 가능하다.

버라이즌의 데이터요금은 1기가가 월 \$30, 3기가 \$45, 6기가 \$60, 12기가 \$80이므로 본인의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버라이즌의 무제한 통화 및 문자 요금은 전화기 1개 라인 당 월 \$20이며 아이폰일 경우 단말기 비용 \$649와 데이터비(3기가 경우) \$45를 포함해 약 2년간 \$2,209 비용이 예상된다. 버라이즌은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시 가격이 다른 회사와 비교해 저렴하지만 6기가 이하를 선택할 경우 더 비싸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버라이즌의 경우 가격이 다른 회사와 비교해 비싸지만 어디서나 잘 터지는 리셉션을 자랑하고 있다.

### T-Mobile

티모빌(t-mobile.com)은 미국내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이동통신 회사이다.

티모빌의 가장 매력적인 요금제는 가족 요금제다. 가족 구성원 당 10기가 바이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무제한 통화 및 문자 요금을 합해 2명 가족의 경우 \$100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3명 가족의 경우 구성원당 10기가 바이트 데이터에 무제한 통화 및 문자요금을 합쳐 \$120에 제공



된다. 가족 구성원이 4명일 경우에도 \$120로 가격이 같다. 따라서 4명 가족에게 최고의 요금제다.

개인요금제로서는 1기가 바이트의 데이터와 무제한 통화, 문자를 제공하는 \$50요금제가 있으며, 3기가의 경우 \$60, 5기가 \$70이다. \$80요금제는 \$80 요금제를 선택하면 무제한 데이터, 문자,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티모빌에서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을 24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개인당)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 4명의 각 스마트폰이 월 \$20일경우 매달 \$80(가족 4명)에 가족 플랜 \$120(4기가 바이트 데이터)가 더해진 가격 \$200이 매달 가격이 된다.

리스(Lease)를 할 경우 18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된다. 리스(18개월)이 지난 후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트레이드인(Trade-In)할 경우 새롭게 리스하는 스마트폰 단말기는 월 12불씩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리스는 매번 새로운 갤럭시나 아이폰을 구입하고 싶을 경우 추천하는 방법이다.

▶▶다음호에 계속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돌아온 애플피킹의 계절, 온가족 가을나들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보스톤의 가을을 애플 피킹으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무더위도 서서히 한풀 꺾일 전망이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한창 무르익은 사과를 직접 따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 ▶ 레드 애플 농장(Red Apple Farm)

레드 애플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4세대에 걸쳐 이어져오는 가족 농장이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와 블루베리 피킹도 가능하다. 가을 주말에는 바베큐 파티를 비롯해, 직접 트랙터가 끄는 건초 더비에 올라타 농장을 돌아볼 수 있는 헤이라이드(Hayride)도 해 볼 수 있다.

455 Highland Ave., Phillipston MA,  
www.redapplefarm.com  
800-628-4851



### ▶ 토가스 가족 농장(Tougas Family Farm)

보스톤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자리잡고 있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이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



장하나, 과일이 익는 시간 등을 고려해 며칠씩 간격을 두고 오픈과 휴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방문 전 반드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사이트를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9월에는 매킨토시, 갈라, 허니크리쉬, 허니골드 등 20여종의 사과를 딸 수 있으며 매달 수확하는 사과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사과나무도 있으며 애플 피킹 외에도 페이스 페인팅, 경운기 열차, 농장 동물 만나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호박 피킹은 10월 말까지 계속된다.

234 Ball Street, Northboro, MA 01532  
http://www.tougasfarm.com/  
508-393-6406

### ▶ 러셀 오차드(Russell Orchards)

시즌에 따라 피킹 가능한 과일이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되며, 현재는 애플을 비롯해 블랙베리와 블루베리도 가능하다. 주중의 경우 일인당 입장료는 3달러이며 애플 1파운드당 1.75달러로 계산된다. 그러나 주말이나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10파운드 봉지 하나당 20달러를 받는다. 20달러안에는 5명까지의 입장료와 헤이라이드(Hayride)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사이더도넛(Cider Donut)으로 유명하며, 직접 담근 와인을 시음해 볼 수 있는 와이너리 또한 인기다. 주말에는 오후 12시부터 5시 반까지 시음이 가능하며 (5달러에 네 종류의 와인 시음 가능) 평일 시음은



별도로 예약을 해야 한다.

143 Argilla Road, Ipswich, MA 01938  
http://www.russellorchards.com/  
978-356-5366

### ▶ 벨킨 룩아웃 농장(Belkin Look Out Farm)

1651년에 시작한 농장으로 미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농장 중 하나다. 180에이커 규모에 60,000 그루의 과일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농장으



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한다. 현재 매킨토시와 갈라 애플을 비롯하여 복숭아와 자두도 딸 수 있다. 특히 주말에는 페이스 페인팅, 바베큐 스낵바, 스위트 토마토 피자 트럭 및 포니 라이드까지 각종 이벤트가 함께 해 즐거움을 더한다. 입장료는 평일 9달러이며, 주말에는 성인은 15달러, 12세 미만 어린이는 13달러이다. 2살까지는 무료 입장이다.

89 Pleasant Street South, South Natick, MA 01760

http://www.lookoutfarm.com/  
508-653-0653  
htj@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등 각종 통증질환
- 유선, 전두두통, 두통, 메니에르 증후군
-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코골이
- 관상 동맥질환, 심장, 호흡기 질환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등 각종 통증질환
- 유선, 전두두통, 두통, 메니에르 증후군
-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코골이
- 관상 동맥질환, 심장, 호흡기 질환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 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GB Family Physical Therapy

##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사우스 앤드 예술가들 작업실 개방, 오픈 스튜디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1986년 사우스 앤드에 등지를 뜬 몇몇의 예술가들이 친구들과 이웃들을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하면서 시작된 사우스 앤드 오픈 스튜디오(Open Studios)가 올해로 29회를 맞는다. 9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약 250여명의 아티스트들이 작업실을 대중에게 개방한다.

오픈 스튜디오는 사우스 앤드의 가장 큰 연중 행사로, 단순히 작업실을 개방하는 것을 넘어 동네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뜬다. 작업실을 보여 온 사람들을 비롯해 야외 테라스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덤으로 청명한 가을날씨까지 더해 진다면 완벽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다.

작업실 투어를 시작하기 전, 먼저 트레몬트 스트리트(Tremont St.) 551번지나 해리슨 에비뉴(Harrison Av.) 560번지 앞에 설치될 인포메이션에 둘러 작업실들의 위치가 나와있는 안내 책자를 받고 투어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트레몬트 스트리트 539-551번지에는 가장 많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모여 있는 보스톤 아트 센터(Boston Center for the Arts)가 위치해 있으므로 먼저 이곳부터 둘러볼 것을 권한다.

보스톤 아트 센터를 둘러 본 후에는 안내 책자에 나와있는 지도를 따라 트레몬트 스트리트에서 소와(SoWa)가 위치한 해리슨 에비뉴쪽으로 내려오면 된다. 거리 중간 중간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실이나 갤러리들은 입구에 풍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함께 둘러보면 된다.

이 행사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접해 볼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경직된 분위기의 갤러리에서 벗어나 실제 작가들과 그들의 작업실에서 자유롭게 담소하는 재미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간단한 스낵 등이 준비된 스튜디오도 많으니 이 또한 작은 즐거움이다.

대중 교통 이용 시, 오렌지 라인의 백 베이(Back bay)나 그린 라인의 코플리(Copley)역에서 하차해 10-15분 정도 걸어 트레몬트 스트리트까지 가면

된다. 공용 주차장은 해리슨 에비뉴 500번지와 540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하루 10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단, 500번지의 경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저녁 9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일요일에 들릴 시에는 알바니 스트리트(Albany St.) 365번지나, 해리슨 에비뉴 540번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주차료는 하루 10달러로 동일하다.

htj@bostonkorea.com



올해만큼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잔치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무료증정

**잔치2** 추출액 3종(지삼/양삼/절삼)  
10%할인

**오래오래 건강하게!**  
**한가위 대잔치**

행사기간: 9월 27일 까지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추석**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행사기간: 9월 27일 까지

2015년 추석, 소중한 분들께 6년근 홍삼 화장품 동인비로 마음을 전하세요.

**동인비 제품 \$60이상 구매시**

동인비초 클렌징 폼 **무료증정** 혹은 동인비초 미스트 **무료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781-238-03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전자 담배 규제 법안 9월말부터 시행

18세 미만 전자 담배 구입할 수 없어  
마케팅 목적으로 전자 담배 배포 금지



전자 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9월 말부터 18세 미만인 사람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전자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며, 전자 담배에 사용되는 액체와 젤은 어린 아동이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판매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법무부는 미성년자에게 전자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 담배 규제 법안을 최근 승인했다.

법무부에서 승인된 전자 담배 규제안은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전자 담배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자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고 직접 사람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 건물에서는 자판기를 통해서도 전자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모라 힐리 법무장관은 “전자 담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자 담배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공공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며 “어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자 담배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 담배 규제안은 지난 11일 승인되었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오는 9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전자 담배 포장에 대한 규제만 내년 3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전자 담배는 배터리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기구로 니코틴이 함유된 액체를 기체 형태로 변환시켜 흡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자 담배는 일반적으로 불을 붙여 피우는 담배에 비해 타르와 기타 화학 성분이 적게 들어있

다. 법무부는 전자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로 정해 놓았지만 각 타운이나 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더 높게 구입 연령을 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자 담배는 특히 10대 청소년 층에서 빠르게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LA의 고등학교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10대 시절에 전자 담배를 사용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일반 담배를 피울 확률이 높았다.

jsi@bostonkorea.com

## 경찰 펜웨이 강간범 공개 수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경찰은 15일 이른 새벽 펜웨이 파크 인근 아파트에서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용의자의 CCTV 동영상을 공개하고 공개수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 피해자는 지난 15일 새벽 12:30분경 펜웨이 파크 인근 퀸즈베리 스트리트에 있는 아

파트에 침입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용의자는 2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중간정도 몸크기에 6피트의 키의 소유자다.

경찰이 공개한 비디오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스톤 경찰은 “비디오를 보고 용

의자의 특징 일반적 용모를 파악해 달라”고 말하고 “비디오에 나타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시민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결코 이 용의자가 현상수배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관련 용의자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보스톤경찰(617-343-4400) 또는 익명 제보(1-800-494-TIPS)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유매스 보스톤 노조가 이사회에 등록금 인상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 유매스 보스톤 노조 등록금 인상 반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이하 유매스 보스톤) 소속 교직원과 교수 노조가 최근 인상된 등록금을 원래대로 인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유매스 이사회는 지난 6월 회의를 통해 유매스 보스톤의 등록금을 최대 5%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매스 보스톤은 지난 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시켰으나,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학교 운영이 힘들다며 학생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유매스 보스톤 소속 교수 노조, 교직원 노조, 일반 직원 노

조의 대표들이 일제히 이사회에 결정에 반대 성명을 내고 등록금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각 노조의 대표들은 유매스 보스톤 이사회의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유매스 보스톤 소속 노조들은 등록금이 인상되면 도심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학교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스탠 로젠버그 매사추세츠 상원의장도 유매스 보스톤에 등록금 인상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매스 보스톤은 등록금을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며,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려면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실용수업**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매년에도 New Star Realty의 리더로 일하며, 10년간 보스톤 지역 최고의 실용수업 강사로 활동하며, 100여 명의 고객에게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부동산 실용수업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가목의 정확,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orengrn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역민, 한마루, 사출 실방만, 침팬다네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풀스런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BEDFORD 지역 단독주택**

**For Sale: \$599,000** 3+ Beds, 2 Bath, 2238 sqft (Lot size: 1.3 acr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경관, 양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 미 공화당 경선 여론조사서 트럼프 '주춤' · 카슨 '깡충'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뉴욕타임스(NYT) · CBS방송 여론조사에서 약체로 평가받은 벤 카슨이 1위 주자 도널드 트럼프를 4%의 격차로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상승폭은 그전보다 줄었으며, 카슨으로부터 바짝 추격을 당하는 모양새가 됐다.

NYT는 15일 지난 9~13일 공화당 지지자 1천26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27%, 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카슨이 23%의 지지율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 달여 전인 지난 8월 초 CBS 여론조사에서 24%의 지지율을 보였던 트럼프는 이번 조사에서 3%포인트 상승해 27%를 기록했다.

반면, 카슨은 6%에서 무려 17%포인트 뛰어 올라 23%로 올라섰다.

NYT는 트럼프가 '그저 그런 상승'을 보인 반면, 카슨은 트럼프와 동률에 가까운 수준에 접근했다고 전했다.

카슨은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 계층으로부터

트럼프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의 지지율은 모두 한자릿수였다.

젠티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3명이 6%의 지지율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5%,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는 4%, 존 카시치 오하이오 주지사와 랜드 폴 상원의원은 각각 3%였다.

피오리나 전 CEO와 카시치 주지사만 지지율이 올랐고, 나머지는 모두 떨어졌다.

특히, 부시 전 주지사는 13%에서 6%로,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10%에서 2%로 급락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7%는 전당대회에서 지지할 후보를 정했다고 말한 반면 63%는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말하기는 이르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6%이다. quintet@yna.co.kr

# '수수한 록스타 대선후보' 샌더스 "1%로부터 권력 빼앗자"

(마나사스=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74세의 나이에도 버니 샌더스는 '록스타'였다. 무소속 상원의원이지만 민주당 소속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뒤 지난 6월부터 미국 정치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샌더스가 14일 버지니아 주 마나사스를 찾았다.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점만 빼면 영락없는 록스타였다.

샌더스 후보의 대표적인 특기로 꼽히는 즉흥연설이 이날은 1시간 6분동안 이어졌다.

"여성문제나 노동문제 같은 사안을 우려한다면 부패한 선거자금 모금제도를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선을 주장했고, "대형은행 4개 중 3개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커졌다"며 무분별한 금융자본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난화에 대응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인종주의 문제에 대해 갈 길이 멀다"는 말을 포함한 인종 문제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우리는 99%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때입니다"라고 역설하거나 "

이 위대한 나라와 우리의 정부는 우리 모두의 것이지 소수 억만장자만의 것이 아닙니다"같은 말을 할 때마다 청중들은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샌더스 후보의 목소리가 문힐 정도의 큰 함성으로 화답했다.

아이오와 주나 뉴햄프셔 주 같이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지역에서 여전히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각각 10%포인트와 22%포인트 앞선 데 고무된 지지자들의 함성은 유세장으로 쓰인 전형적인 미국 지방 축제 공간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페어그라운드'를 그 어떤 축제보다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유세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자원봉사자로 진행을 돕거나 기념품 판매에 나서기도 했지만, 직접 만든 샌더스 지지 포스터를 들고 오거나 준비해온 음식을 다른 지지자들에게 나눠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다.

샌더스 후보는 연설이 끝난 뒤 약 15분 동안 연단과 무대 사이에 마련된 통로를 돌며 지지자들과 악수한 뒤 유세장을 떠났다. smile@yna.co.kr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 벤 카슨



무소속 상원의원이지만 민주당 소속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샌더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arks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파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실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피당사함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최지희 헤어 (Elise Image)**  
휴일없는 미용실

당신의 개성과 상품함을 찾아 드립니다

월, 화 스페셜: Cut 남\$15/여\$25

- 남녀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배디 마사지
- 영구화장
- 속눈썹 연장 사술 지도

118 Condit St. Brookline MA 0211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56

Beauty & Hair  
Mon-Sun 10am - 7pm  
Spa: Tue - Wed  
머리카락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미국의 글로벌경제 리더십 흔들린다

(서울=연합뉴스) 정선미 기자 = 미국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 세계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고사하고 신흥국을 비롯한 각국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3차례에 걸친 양적완화(QE)와 7년여에 걸친 초저금리 정책으로 자국 경제를 회복케도에 올라섰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내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가 좋아졌으니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금리를 정상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가 좋지 않고 특히 신흥국은 위기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이 자국의 경제를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미국은 지난 2000년대 초저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해 부동산 거품을 불러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며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트린 바 있다. 이 때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렸다.

미국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해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이 불확실성만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 연준 인사들은 시장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신호를 주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미국은 금리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강력한 양적완화로 미 경기 ↑, 세계경제 달려뵈 ↓

그동안 연준의 강력한 유동성 투입은 세계 경제의 부채를 늘렸다.

미국이 3차에 걸쳐 실시한 양적완화의 규모는 모두 3조6천억달러(4천253조원)에 이른다. 미국은 또 2008년 12월부터 기준금리를 초저금리(0~0.25%)로 유지했다.

이는 신흥국이 달러부채를 늘리기에 좋은 조건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은행을 제외한 기업들의 달러표시 부채는 지난 2009년 이후 50% 늘어난 9조6천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흥국 기업들의 부채는 3조달러 이상이다.

지난 1년 동안 주요 바스켓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0%나 높아져 달러부채 상황 부담이 높아졌다.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 달러화 가치는 더 높아진다. 전 세계의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은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을 수 있다.

연준이 자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넷 옐런

자신감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동안 풀린 막대한 유동성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진단했다.

아시아 외환위기는 연준이 1994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금리 인상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신흥국 사정을 무시한 금리 인상이 결국은 자국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텔레그래프는 말했다.

◇ 글로벌 경제 '위태위태'...과거 미 금리인상 때와 달리

미국의 긴축은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준은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선제 안내(포워드 가이드) 등을 통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연준의 노력은 예상보다 심각한 중국의 주식시장 불안과 '깜짝' 위안화 절하, 이에 따른 신흥국 위기 심화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글로벌 경제는 올해 중국의 둔화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지는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의 성장 둔화를 경고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또 낮췄다.

OECD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3.0%와 3.6%로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또 중국은 올해 7%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6.7%에 그칠 것이며 내년에는 6.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ING은행의 톱 카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를 통해 연준이 미국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해의 반응이 어떨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만약 금리를 올린다면 앞으로 인상은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며 이미 고전하는 신흥국 경제를 망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네 차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인 1988년(6.52% → 9.75%)과 1994년(3.00% → 6.00%), 1999년(4.76% → 6.50%), 2004년(1.00% → 5.25%) 당

시와 달리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점차 악화하고 있다.

◇ 오락가락 행보로 금리 올려도 동결해도 '뭇매'

연준의 금리 결정이 갖는 무게감에도 연준 인사들은 시장을 안심시킬만한 시그널을 주는 것에 실패했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수개월 동안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를 미세조정하고,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신중하게 만들어 왔는데도 '금리 인상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추면 해외 경제에 발목이 잡혀 연내에는 금리 정상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연준의 신뢰도에 타격을 준다. 그동안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인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금리 동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의 존 브릭스 전략 책임자는 "연준이 움직이지 않고 불확실성을 지속시켰을 때 주식시장의 상황이 우려된다. 가능성만 남겨두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라면서 "매우 비둘기파적인 언급과 함께 금리가 올라가면 확실성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7년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한 자산시장의 거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더 커진 거품으로 인한 후폭풍도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 반대 의견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선물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28%로 보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의 핵심은 소통"이라면서 9월에 금리를 올린다면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준이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리 인상에서 선진다고 해도, 그 충격으로 세계 경제를 비롯해 미국 경제까지 다시 주춤해진다면 금리 인상 행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mjeong@yna.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오바마 경제정책 호감도 35%에서 49%로 급등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미국의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49%에 달했다. 반면에 비호감도는 47%였다.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호감도가 비호감도를 앞선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이후 다섯 번째다.

앞서 지난 3월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호감도는 49%, 비호감도는 46%로 각각 집계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2011년 10월 조사에서

35%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호감도가 35%에서 49%로 치솟은 것은 최근 들어 나타난 미국 경제의 완전한 회복세 덕분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5.1%로 푹 떨어진 것도 미국인으로 하여금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안도감을 확산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의료보험 개혁, 수당·유급휴가제 확대 등의 정책 효과도 특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7~10일 사이에 미국의 성인남녀 1천3명을 상대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됐다. gija007@yna.co.kr



## "아이폰 첫주말 판매 작년 1천만대 기록 갱신"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애플이 오는 25일 출시되는 새 아이폰의 첫 주말 판매량이 작년의 1천만대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애플의 공보담당 직원인 트루디 밀러는 14일 언론매체들에 보낸 성명서에서 아이폰 6s와 6s 플러스의 예약주문 실적이 "극도로 긍정적"이라며 이렇게 전망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아이폰 6s 플러스에 대한 수요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25일 애플 리테일 스토어들이 문을 열 때 아이폰 6s뿐만 아니라 아이폰 6s 플러스도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형 아이폰의 예약주문 실적 호조인 것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이 작년과 달리 1차 출시 지역에 포함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

인다.

애플은 9일 특별 행사에서 신제품 아이폰을 공개한 후 12일 예약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제품 출시일은 금요일인 25일이다.

새 아이폰의 첫 주말 판매량은 2012년 아이폰 4s 400만대, 2013년 아이폰 5s·5c 900만대, 2014년 아이폰 6·6 플러스 1천만대였다.

그러나 애플은 재작년이나 작년과 달리 올해 예약주문 개시 24시간 실적을 수치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예약주문 개시 첫 24시간의 판매량은 2013년 200만대, 2014년 400만대였다.

14일 뉴욕 나스닥에서 애플 주가는 116.51달러로 개장했으며, 개장 1시간 30분 후에는 전날 종가보다 1.58% 오른 115.79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에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전날 마감 당시보다 각각 0.25%, 0.36% 하락했다. solatido@yna.co.kr



# 한반도 정세 다시 요동 조짐...북, 로켓 이어 핵실험 시사

노동당 창건 70년 앞두고 대내외적 무력시위

남북 대화국면서 중-미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 변화 등 '판 흔들기' 의도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제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연일 무력위협 강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15일 원자력연구원장과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뇌성으로 대담할 단단의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핵뇌성'은 지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자주의 핵뇌성을 잠재하게 울렸다'고 언급했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핵실험을 의미하는 단어다.

북한은 전날인 14일엔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을 통해 장거리 발사체를 통한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장거리 발사체를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방식은 핵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발사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금지

된 무력위협 행위다.

북한의 이번 일련의 무력위협은 기본적으로는 먼저 노동당 창건 70년 기념일(10월10일)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은 올해 당 창건일을 '대축전장'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대내외적 체제선전 및 과시용 행사를 준비해왔다.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 역시 이미 주중대사, 주유엔대표부 등 외교채널을 통해 수차례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북한은 과거 광명성 2호(2009년 4월), 광명성 3호(2012년 4월), 광명성 3호 2호기(2012년 12월) 등을 모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주기에 맞춰 발사하는 행보를 보인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25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기점으로 남북이 전면적인 대화국면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상황관리'를 고려하지 않는 듯한 일련의 행보에는 미국과 중국 등을 의식한 외교적 전략도 내포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내달 16일 한·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중국 정상들의 외교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존

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일종의 '떠보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전날과 이날 연속해서 무력위협 입장 발표를 관련부서 임명의 당국자와 기자의 문답 형식으로 내보냈다는 점과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을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석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신들의 핵보유 및 인공위성 발사의 '평화적 권리'를 강조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대북 압박이 가해지면 높은 수준의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임을 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유엔 및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핵실험'이라는 수순을 밟아왔다.

한편으로 연이어 발표된 입장이 아직은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를 할 경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수준의 입장표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북한 원자력연구원장 역시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일련의 입장 발표 후 한동안



북한이 지난 2012년 외국 언론에 공개한 장거리 발사체 은하3호의 모습

관련국의 추이를 지켜보며 장거리 발사체 발사 및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에서 '예고' 수준으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이 광명성 2호와 광명성 3호 발사를 앞두고 '담화' 형식으로 명백하게 발사를 예고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음 수순도 이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남북 대화국면을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갈 경우 국제사회의 더욱 강경한 압박이 가해지는 등 북한에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아주 이른 시기에 무력위협 강도를 급격히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틀간 밝힌 일련의 무력위협에도 불구하고 내달 말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간 실무준비는 예정된 수순대로 차질 없이 임하고 있다.

정부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 자체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던 과거와 차이가 있다"며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seojiba@news.kr

#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Dunwoody College	
Le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assachusetts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 (617) 338-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SEP. 18TH - SEP. 24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and Instagram!

## Fall in love with FALL SAVINGS

cooler weather, cooler prices!

### 하마트 가을맞이 세일

**FRI./SAT./SUN ONLY** **NEW TOP**

**Koimo Sweet Potato**  
 넉 코이모 고구마  
 lb. **\$1.49**

**FROZEN**

**TONGTONGBAY Small Octopus**  
 통통배 심상 낙지  
 15 lb. Whole **\$6.99**

**FRESH**

**Beef Top Blade Steak**  
 부허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7.99**

**U.S.D.A. CHOICE**

**HARU HARU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9.99**

**BEST GIFT**

**SUHYUP Premium Roasted Seaweed**  
 수협 전장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8.99**

## Welcome to the Gyeongbuk

**TRADITIONAL KOREAN MARKETPLACE**  
 Come enjoy the finest products of the Northern province of Gyeong Sang in South Korea. Every year Hmart brings you their finest quality products.

**경상북도 우수 농수산물 특판전**  
**Sep. 18th - Sep. 20th, 2015**  
 Only at Hmart Burlington

**Pride Gyeongbuk**

33년 전통의 미주 최대 고국선물관

## 한마름 고국통신탈매

9월 27일 추석 맞이 명품 한우, LA갈비, 굴비, 전복 및 제수용 과일세트 등 전품목 최대 20% 할인!

전화 주문: 201-229-1111  
 인터넷 주문: WWW.HMART.COM

**JINGA** The Finest Korean Tradition

## RICE CAKES STAY SOFTER & LONGER

한국의 특허기술로 만들어 냉장고에서도 말랑말랑 오래가는 **진가떡**

<p><b>FRI./SAT./SUN ONLY</b> <b>BEST GIFT</b></p> <p><b>Lago Grape</b>              라고 포도              Half Box  <b>\$12.99</b></p>	<p><b>FRI./SAT./SUN ONLY</b> <b>BEST GIFT</b></p> <p><b>Golden Kiwi</b>              골드 키위 박스              box <b>\$19.99</b></p>	<p><b>USDA ORGANIC</b></p> <p><b>Organic King Oyster Mushroom</b>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b>\$3.99</b></p>	<p><b>FROZEN</b></p> <p><b>JINGA Tofu</b>              진가네 두부              Firm/Soft - 16oz. <b>\$0.99</b></p>	<p><b>FROZEN</b></p> <p><b>Sliced Beef Short Plate</b>              냉동 삼겹살지 슬라이스              lb. <b>\$7.99</b></p>	<p><b>FROZEN</b></p> <p><b>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b>              양념 소불고기              lb. <b>\$6.99</b></p>
<p><b>FRESH</b></p> <p><b>Boneless Pork Loin</b>              돈가스용 돼지고기              lb. <b>\$4.99</b></p>	<p><b>FRESH</b></p> <p><b>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b>              양념 불닭삼겹살              lb. <b>\$5.99</b></p>	<p><b>FRI./SAT./SUN ONLY</b></p> <p><b>Uni</b>              성게알 (우니)              2.11oz./pkg. <b>\$6.99</b></p>	<p><b>FRI./SAT./SUN ONLY</b> <b>FROZEN</b></p> <p><b>Norwegian Mackerel</b>              노르웨이 고등어              lb. <b>\$1.99</b></p>	<p><b>FROZEN</b></p> <p><b>SUHYUP Alaska Pollock Fillet</b>              수협 부침용 동태살              14.1oz./pkg. <b>\$4.99</b></p>	<p><b>TONGTONGBAY Dried Anchovy</b>              통통배 볶음멸치              10oz./pkg. <b>\$10.99</b></p>
<p><b>SAM SU GAB SAN Brown Rice</b>              삼수갑산 현미              15 lbs. <b>\$9.99</b></p>	<p><b>SAMYANG Spicy Fried Chicken Noodle</b>              삼양 불닭볶음면              4.9oz. x 5ea./pkg. <b>\$5.99</b></p>	<p><b>HAECHANDLE Hot Pepper Paste Set</b>              해찬들 고추장 세트              6.6 lbs. + 1.1 lbs./pkg. <b>\$14.99</b></p>	<p><b>S&amp;B Golden Curry</b>              S&amp;B 골든 카레              All Varieties/8.4oz. <b>\$2.99</b></p>	<p><b>SINCERE Fresh Rice Stick Noodle</b>              냉장 월남 쌀국수              16oz. <b>\$0.99</b></p>	<p><b>CHAOKOH Canned Coconut Milk</b>              차코 코코넛 밀크              13.5fl.oz. <b>2\$2.99</b>              ea./for</p>
<p><b>PEI TIEN FOODS 12 Grain Crispi Roll</b>              12곡 크리스피 롤              Original/6.35oz. <b>2\$3</b>              ea./for</p>	<p><b>JACK LINK'S Original Beef Jerky</b>              잭링크스 오리지널 육포              14oz. <b>\$9.99</b></p>	<p><b>네추럴 가든 유기농 석류주스</b>              NATURAL GARDEN Organic Pomegranate Juice              33.8fl.oz. <b>\$2.99</b></p>	<p><b>BPA FREE</b></p> <p><b>INCENSE Food Container</b>              인센스 밀폐용기              7400mL <b>\$11.99</b></p>	<p><b>키친아트 스테인리스 원터치 물병</b>              KITCHEN ART Stainless Steel One-Touch Bottle 1300mL/ea. <b>\$6.99</b></p>	<p><b>KITCHEN ART Stone Grill</b>              키친아트 자연석 구이판              33cm/ea. <b>\$27.99</b></p>

# 안보리, 북 도발 땀 자동 추가제재...미, 중·러와 압박수단 논의

'트리거 조항'으로 안보리 제재는 피할 수 없는 수순

안보리 결의 실효성 논란...미, 중·러와 북 통치자금 차단 가능성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최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 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친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에 돌입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2호기를 발사하자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에 위한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을 처음으로 명시한 대북 제재결의 2087호를 채택했다.

트리거(trigger)는 총의 방아쇠 또는 사건을 유발한 계기라는 뜻인데, 트리거 조항은 제재 대상국이 결의안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 제재를 가하는 '자동 개입'조항을 뜻한다.

대북 제재결의 2087호는 19항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

(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 2094호에도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 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북한이 내달초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안보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안을 회부해 제재에 나서게 된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내달초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 등은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와는 별개로 북한에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만한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간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 때마다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등을 채택해 제재 수위를 높여왔으나,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유엔의 결의안들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이전과 화학 검색 강화 등의 제재를 가했지만 국제사회는 또다시 내달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 북한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직접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들 국가가 기존의 금수조치 수준의 대북 경제제재를 넘어 북한의 통치 자금줄을 틀어쥐 더 강력한 금융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제재 이상의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러시아 측과 다른 압박 수단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도 15일 "오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비핵화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실시하면 경

제를 성장시키려는 스스로의 열망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이미 의회를 통해 북한에 금융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안을 다듬어 왔다"며 "미국이 북한의 통치자금이 흐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금융제재에 가담하게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아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reenaomi@news1.kr

## 미·중·일·러와 한자리에...박 대통령 유엔 '조우 외교'

별도 양자회담 없지만 주요국 정상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

28일 오바마, 시진핑, 푸틴 이어 박 대통령 7번째로 연설

북핵·미사일 위협 고조될 경우 유의미한 접촉 있을수도

리수용 외무상도 유엔개발정상회의 참석해 조우 여부 관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호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25~28일 유엔 방문시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이 미국 뉴욕에 집결하면서 유엔을 무대로 한 박 대통령의 '조우 외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 창설 70년인 올해 유엔 총회에는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이들 정상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유엔 외교무대에서 박 대통령은 이들 4개국 정상과 양자회담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일 한중정상회담, 내달

16일 한미정상회담, 10월말~11월초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 유엔 총회는 징검다리 성격의 '조우 외교'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 28일(이하 현지시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연단에 선다.

순서는 유엔본부에 있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매년 해왔던 관례대로 2번째로 연설을 하며 박 대통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번째로 발언할 예정이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 사이에 연설한다. 국가원수인 다른 나라 정상과 달리 아베 총리는 직책상 행정 수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위급 회기 둘째 날인 29일에 연단에 오른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에도 박 대통령이 연설한 다음 날 발언했다.

또 국왕 또는 대통령 참가국, 총리 참가국, 장관 참가국 등의 순서로 발언하는 유엔 관례에 따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10월1일 연단에 선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유엔 개발정상회의(25~27일),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오찬(27일), 유엔 평화활동 정상회의(28일) 등의 일정에서도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과 만날 기회가 있다. 개발정상회의

에는 리수용 외무상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25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뉴욕 방문 기간도 박 대통령의 일정과 일부 겹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유엔 방문과 맞물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위협이 구체화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유의미한 접촉이 현장에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중국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푸틴 대통령과도 조우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북이 8·25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급이 맞지는 않지만 북한 리수용 외무상과의 조우 여부도 관심이다.

리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지난해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때 단상 바로 앞에 있는 대표부 자리에서 연설을 끝까지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soleco@yna.co.kr

## "국내개발 최신에 잠수함 어뢰방어 불능상태로 작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내에서 개발한 최신에 잠수함인 214급(1800t급) 잠수함들이 사용이 불가능한 어뢰 회피용 기만기를 최근 3년여간 장착한 채 작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7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출받은 '214급 잠수함 기만기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2013년 3월 214급 잠수함에 대해 기만기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손원일함 21발, 정지함 24발, 안중근함 9발이 모두 '치명적 결함'에 해당되는 침수현상이 발생해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발사관 해수유입을 막으려고 넣은 충전액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발사관에 이격이 발생, 해수가 유입돼 기만기 침수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기만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기품질원은 2013년 7월 원인조사를 마친 뒤 214급 잠수함의 기만기 개량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209급 잠수함과 같이 함내에 기만기를 두고 수동으로 쓰는 방식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인 분석과 결론이 끝

났는데도 2년간 아무 대책 없이 임시방편으로 수동방식의 어뢰대응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빠른 시일 내 자동방식으로 어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예류성룡함(이지스함) 장병들이 2012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력제가 불량인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군은 2012년 8월 서예류성룡함에 구명조끼 128개를 보급해 장병들이 이 구명조끼를 입고 1년 반 동안 작전에 투입됐으나 2014년 3월 해군 정비창 부력검사 결과 110개 중 103개(94%)의 부력제가 성능불가로 조사돼 전량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품질보증 기간 1년이 지났으며 교환조차 거부했다.

김 의원은 "수락검사 때 부력제 검사만 했어도 부력제에 표시된 'X'와 성능불량을 발견했을텐데 이를 알지 못한 품질보증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해군 장병이 착용하는 구명조끼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yjikim84@yna.co.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갑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갑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완부가 손상되기 전의 최고 계층을 획득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록라인, 월섬)



❤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록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63

### 혁신안 두고 새정치 내홍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문재인, 안철수 두사람 모두 초선의원인데 대선 후보다. 조국 교수는 이 두사람이 모두 '정치'하기로 작심했다고 트윗했다. 혁신안을 두고 문재인은 재신임 카드를, 안철수는 '혁신안 실패론'을 꺼내들었다. 두사람과 주류 비주류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두 대선 후보는 갈등하며 지지율이 올랐다. 문재인은 재신임 카드를 통해 당 주도권 강화를 노렸다. 안철수는 반대를 통해 몸값 및 인지도 향상을 노렸다. 두사람은 모두 지지율이 올라 단편적으로는 성공했다. 진정한 정치를 했는지는 물음표다. 당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과 배려가 필요하다. 두 대선후보에게서 박근혜의 불통 냄새가 풍기는 것은 그리 반갑지 않다.

# 혁신안 가결...상처투성이 문, 재신임 첫 관문 통과

무기명투표 요구 비주류 집단퇴장 속 박수로 만장일치 처리

문재인 "혁신은 이제 시작...체질 바꾸는 근본적 혁신 노력"

이종걸, 당 통합기구 제안...안 "대표 진퇴 처리로 변질" 불참

(서울=뉴스1) 박태정, 박웅진,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혁신안 부결시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첫 관문을 우여곡절 끝에 넘게됐다.

문 대표는 무난히 혁신안 통과를 관철했지만 비주류측과의 난타전 끝에 얻은 수확이어서 '상처 뿐인 영광'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문 대표가 추석 전에 재신임 투표를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중앙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도체제 변경 등에 관한 당헌 개정안'과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을 각각 차례

로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지도체제 변경 개정안은 최고위원제 폐지에 따른 권역별·계층별 대표위원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천 관련 개정안은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총선 경선 선거인단을 '100% 국민공천단'으로 구성하고 정치신인 가산점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위원 재적위원 57명 가운데 과반(298명)이 넘는 417명이 참석했다. 표결은 찬반을 박수로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석 위원은 1차 안건 표결에 317명, 2차 안건 표결에 3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혁신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기명 투표를 요구한 비주류 위원들은 첫 안건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지만 표결 정족수가 미달되지는 않았다.

문 대표는 혁신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당의 문화를 바꾸고 또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본질적인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재신임 투표 여부에 대해선 "이번 추석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점에 대해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당의 단합과 통합을 위한 일인 만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통과된 혁신안이 지고지순한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모든 혁신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한 본질적인 혁신도 남아 있다. 함께 해 나가자는 합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고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회의 뒤 "오늘로서 새정치연합의 혁신 기틀이 마련됐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며 "이 시작이 앞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비주류를 대변해온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 뒤 문 대표의 재신임 여부와 관련 "(문 대표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당 대표 주관의 통합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오늘 중앙위 이후 당 통합과 총선 승리, 집권을 위한 비전, 그리고 당의 플랜을 꼭 마련해야만 중앙위원과 당의 기대와 입장을 수용할 수 있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중앙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입장자료를 내고 표결 방식과 관련, "극소수만이 무기명 투표에 동의하였고 다수는 본 안건이 인사문제가 아니므로 기립 혹은 거수로 처리하는데 동의했다"며 비주류의 집단퇴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는 이날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진표 전 의원, 정대철 상임고문 등 당내 유력 인사들도 중앙위원 자격으로 대거 참석했다.

박 시장은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리고 또 그만큼 걱정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높다"며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 있고 혼란 있었지만 통합으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도 "단결은 많은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국가로는 국민이고, 당은 당원으로서 (구성원이) 눈 딱 감고 단결하는 것이다. 단결은 그렇게 얻어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유감스럽게도 오늘 중앙위 성격은 혁신안 찬반이 아니라 사실상 대표의 진퇴를 결정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ptj@news1.kr

## 안철수, 혁신안 통과에 "논란과 분열 지속될 것" 경고

(서울=뉴스1) 박웅진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16일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당 내에서는) 논란과 분열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문재인 대표와 당의 혁신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던 안 전 대표는 문 대표와 별개로 당의 혁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혁신안을 너무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중앙위에 대해 "충분히 반대 의견도 다 듣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적절하게 과정과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중앙위에서의 토론을 바탕으로 혁신안을 보강한 뒤 혁신안을 추후에 표결에 붙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문 대표가 중앙위원들에게 보낸 친서와 관련해 "혁신안은 재신임과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문 대표는 말했다)"며 "결국 혁신안은 대표 재신임과 관련 있다는 게 뒷말 아닌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표 재신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지난 14일 작성해 중앙위원들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이번 혁신안은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혁신안 처리의 협조를 부탁했다.

안 전 대표는 "저는 처음에 혁신경쟁을 하기 위해 문제제기를 한 건데, 결국 대표직의 재신임을 던지면서 이게 변질이 됐다"며 "혁신이 중심이 아니고 대표 재신임이 중심이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을 중심으로 한 중앙위 퇴장은 토론과 반대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탓이라

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충분하게 토론, 반대의견들을 다 듣고 현장에서 보다 더 많은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문 대표와의 혁신 논의에 대해서는 "글쎄다. 그런데 저는 저대로 당이 제대로 혁신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끊임없이 얘기할 것"이라며 '마이 웨이'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pej86@news1.kr

## 야혁신안 중앙위 통과에 비주류 반발... "혁신이 유신돼"

(서울=뉴스1) 박웅진,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는 16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주류-비주류간 대립 끝에 공천개혁안과 지도체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개정안이 통과되자 "혁신이 유신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주류 의원모임인 민주당집권을 위한모임 소속 최원식 의원은 "지도체제 변경과 관련한 당헌개정안이 비주류 의원들의 집단퇴장 속 '만장일치'로 의결되자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회에서는 계파 패권주의를 해소하겠다고 안

을 냈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혁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 무조건 기득권자로 몰고 (토론을) 봉쇄하고 망치려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구태 정치고 계파 패권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제 저희 (비주류)로서는 계파 패권주의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혁신이 되려면 국민과 당원, 모든 사람의 의견을 통합해야 하는데 (혁신위에 동조하지 않으면) 기득권으로 몰아세웠다. 거수투표를 한 건 사실상 혁신이 유신이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smith@news1.kr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성향 의원들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들이 16일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표결을 거부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 (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탈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최대용 시세이도 1호점  
컨설팅/교육/모형  
**홍은희**

### 김무성 대표 흔들기 전면화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김무성 대표 흔들기가 전면화 됐다. 대통령을 '누나' 라고 부른다는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가 김무성 불가론을 거론했다. 파장이 커지자 윤상현 의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라고 발뺌했다. 그러자 친박의 좌장이라는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대표의 핵심공약인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청와대가 김대표 흔들기를 통해 '길들이기' 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세다. 김무성 대표 사위 사건이후 연이은 약재에도 김무성 대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의 이렇다할 반박이 없다는 뜻이다.

# 여 끊어오는 공천 내홍...막오르는 김무성-친박 '총선 전쟁'

서청원 "오픈프라이머리 어려움 봉착 정치생명 걸겠다던 김 입장 밝혀야" 직격탄

친박 총공세에 김 "변함없다" 정면돌파 고수...내심 절치부심

국감 끝나면 친박vs비박 '총선전쟁' 본격화 전망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관철시키겠다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당내 계파와 내홍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친박(박근혜)계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진통 끝에 공천 혁신안을 통과시킨 이상 오픈프라이머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김 대표가 이를 인정하고 '플랜B'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다.

김 대표는 "당론으로 채택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변화가 없다"며 정면 돌파를 택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차선책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일찍 당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이 단장인 TF 회의를 김 대표가 직접 주재하겠다고 전날 밤 공지했다.

새정치연합이 20% 전략공천을 포함한 공천안을 채택하면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려워지자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새누리당은 소개했다.

하지만 야당에 대응하는 성격 보다는 홍문종·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가 오픈프라이머리를 흔들 때 대해 김 대표가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치는 장이라는 분석도 컸다.

비공개 TF 회의에서 김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당론으로 채택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밀고 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야당이 전략공천하는 20% 지역까지 우리는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오전 8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직전 열린 티타임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야당이 저러는데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려운 게 아니냐"며 김 대표를 향해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인지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공천안이 "반개혁적, 반혁신적 제도"라고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은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게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만 했다.

한 측근 의원은 "김 대표가 준비한

모두발언을 다 하지 않고 조절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사전 티타임에서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 사이에 1차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야당의 공천혁신안 통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려움에 봉착했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하고 당선된 김 대표가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제2방안' 연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입장표명 시한을 '국정감사 종료 전후'로 제시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서 최고위원은 재차 김 대표에게 "오픈프라이머리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제2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발표를 정당당당히 하라"고 압박했고,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에 동조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이 통과됐어도 당의 중지라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 연계 협상을 주장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 야당의 진정성을 잘 모르겠다"며 "지켜봐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날이 수위가 고조되는 친박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김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쓴웃음을 지으며 "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수차례 밝혀오지 않았느냐. 추가로 밝힐 게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새로운 방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기조가 변함이 없는 것이지, 투표의 방법에 대해선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단독 오픈프라이머리에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지적에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은 자의적 표현"이라며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선 적은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새로운' 오픈프라이머리 방법으로는 현장 투표가 아닌 100% 여론조사가 거론된다.

오픈프라이머리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 야당이 전략공천을 하는 지역까지 100% 여론조사 경선을 치른다는

복안이라는 풀이다.

새정치연합의 공천 톨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국회 정개특위를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공통되게 필요한 법제화를 조속히 이뤄 이 법을 근거로 새누리당은 모든 지역에 100%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비박계는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불가론' 발언을 비롯해 연이은 오픈프라이머리 흔들기가 일련의 '김무성 와해'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친박계 좌장격인 서 최고위원이 이날 김 대표에게 국감 전후로 입장을 밝히라고 쫓기를 박으면서, 국감이 끝나는 내달 중순부터 친박대비박 간 '공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riwhat@news1.kr

## 서청원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능...김무성 '플랜B' 밝혀야"

"정치생명 건 김, 오픈프라이머리 어려움 인정하고 '제2방안' 연구해야" 직격탄

친박, 홍문종·윤상현 이어 좌장격 徐까지 나서 총공세

(서울=뉴스1) 김영신, 이정우 기자 =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천 혁신안을 통과시키면서 김무성 대표가 촉구해온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가 난망해졌다고 김 대표에게 '제2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하고 당선된 김 대표가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라"면서 그 시한까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후로 제시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이 어제 통과되면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야당과 끝까지 (협의)

해봐야겠지만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도 여야가 합의해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여야의 오픈프라이머리 플랜B 연구에) 앞서서 김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 문제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한 것을 포함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떳떳한 얘기를 전제해야한다"고 김 대표에게 요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우리가 언제까지 야당에 질질 끌려갈 수도 없고 잘못해서 반개혁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안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정감사를 전후해서 김 대표가 입장을 분명히 할 때가 왔다"며 "그렇지 않으면 총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의 발언에 앞서 발언한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공천안을 "반개혁적, 반혁신적 제도"라며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면서 "새누

리당은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게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은 재차 김 대표에게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안되는 것을 인정하고 제2의 방안을 연구해서 내놓겠다는 발표를 정당당당하게 하라"고 재차 압박했다고 당사자와 참석자들이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서 최고위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김 대표에게 '플랜B' 도출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이 통과됐어도 당의 중지라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 연계 협상을 주장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 야당의 진정성을 잘 모르겠다"며 "지켜봐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가) 안되는 거다. 물 건너갔다는 것은 정치권이 다 아는데 언제까지 질질 끌고갈 것이냐"며 "본인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물 건너간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대표가 입장을 얘기하고 제2방법을 연구해나가는 게 맞다. 얘기를 안하고 어물어물 자꾸 넘어가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에 이어 친박계 좌장격인 서 최고위원에게 오픈프라이머리 비관론 압박을 받은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수차례 밝혀오지 않았느냐. 추가로 밝힐 게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건 제 혼자 주장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의원총회를 걸쳐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고 서 최고위원도 지난 경선(전당대회)에서 그 주장(오픈프라이머리)을 했었다"며 "(플랜B)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새로운 방법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eriwhat@news1.kr



# 서울설렁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가까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진,  
공방, 보양, 특출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서울 or Udonchi III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5.8888  
SeoulFoodBaker.bar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퍼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탁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짜마 70불 부터  
디자깅 130불 부터/개머핀 헤어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광복 연구원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The Word Is Out...*

**No One Markets  
Like Hammond**

집을 사고 팔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어렵게 생각마시고  
지금 연락주세요!

**Kalin Bae (배경은)**  
617-981-1542  
kbae@HammondRE.com

**Uni Joo (주윤희)**  
508-641-8924  
ujoo@HammondRE.com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www.HammondRE.com • www.HammondMagazines.com • www.HammondVideos.com

##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 BEST OF KOREAN RESTAURANT 2015

# 보스톤

보스

보스톤코리아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실시하고 있는 보스톤 최고 한식당 응모에 참가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절찬리에 진행중인 응모에는 400여명의 독자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중간 집계결과, 약 4-5개의 한식당이 1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정의 변별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끝에 보스톤코리아는 3주간 응모기간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응모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품도 대폭 늘렸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보스톤 한식당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푸짐한 상품



**1등상 1명**  
한국 왕복 비행기표





**2등상 3명**  
애플와치 | 쿠쿠밥솥  
Tbo 1년 시청권





**3등상 10명**  
최고로 선정된  
음식점 상품권  
각 1매(25불)

후원: KFood with  
**BRICKPOP**  
Get WHOLE. SOME  
Saint  
**AUGUSTIN**  
ASIAN CUISINE

KFood with  
수불  
새라연

 보스톤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국

# 보스톤 최고의 한식집을 선정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한식 식당

## 투표 마감 연장

**10월 9일 응모 마감**  
(9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 한식당 명단 (총 45업소)

- |                 |                  |
|-----------------|------------------|
| 가든하우스(로렌스)      | 산수갑산(벌링톤)        |
| 가주순두부(올스톤)      | 서울설령탕(올스톤)       |
|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 서울 레스토랑(보스톤)     |
| 가유가(올스톤)        | 수라상주문음식(앤도버)     |
| 뉴장수갈비(벌링톤)      | 조조순두부(케임브리지)     |
| 다모여(보스톤)        | 아리수 레스토랑(레먼스터)   |
| 다빈(렉싱턴)         | 야수(브루클라인)        |
| 다오라스시(브락톤)      | 영차우루(벌링톤)        |
| 리틀부산(메이나드)      | 오빠스시(올스톤)        |
| 메주(서머빌)         | 우리(알링톤)          |
| 명동일번지(올스톤)      | 우전(벌링톤)          |
| 미나토 스시          | 우정식당(에이어)        |
| 미소노(브루클라인)      | 웨스트보로한국식당        |
| 미스터 스시(알링톤)     | 이가그릴(로렌스)        |
| 미스터 스시(브루클라인)   | 제이피시푸드카페(보스톤)    |
| 본촌(올스톤)         | 청기와 레스토랑(메드포드)   |
| 본촌(케임브리지)       | 코리아나 레스토랑(케임브리지) |
| 북경반점(올스톤)       | 코리언그릴(퀸지)        |
| 북경반점(서버빌)       | 하나스시(케임브리지)      |
| 비빔(올스톤)         | 한국가든(올스톤)        |
| 사무라이(보스톤)       | 한마루(올스톤)         |
| 사뽀로(뉴튼)         | 젠320(브루클라인)      |
| 사뽀로스시바베큐(웨스트보로) |                  |

혹 빠진 곳이 있으시면 저희 보스톤코리아(617-254-465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식당 명단 중 2개를 골라 공모 용지에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응모는 10월 9일(9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합니다. 응모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해 한국왕복 비행기표를 드립니다. 또한 2등 당첨자 각1명에게는 애플와치 및 쿠쿠밥솥을 드리며 3등 당첨자에게는 최고로 선정된 음식점 상품권 1매(25불)를 10명에게 드립니다.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한식당에는 보스톤코리아 독자 선정 최고의 한식당 증명서를 증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는 1인 1투표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투표는 불가합니다.

#### 베스트 한식당 선정 및 경품 신청서

선정 한식당 1:  
선정 한식당 2:

#### 응모자 정보 기입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한식당 중 2개를 골라 신청 용지에 적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중복 투표는 불가하며, 응모는 9월 18일(18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합니다.

민간인회  민주 평통 보스톤지역 협의회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한국학교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

 보스톤 재향 군인회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 of Padua Korean Church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 (Korean) 4:30pm (Korean)  
 Weekday Tuesday 10:30am (Korean), Thursday 7:30pm (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입교자를 위한 고려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 2015년 9월 7일까지  
 2015년 9월 20일 - 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Grace Bible: 수요일 저녁 7:30 주일 예배: 오후 2:00 금요 기도회: 저녁 7:30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기쁨을 드림 (딤후 3:15)

담임목사: 우시 창  
 교회 (781) 715-0571 •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독한 (Broker/Member of FRI)  
 WWW.GANA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탈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안양대학교 대학원  
 한가람 대학예수교양로회 이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평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Pl. Lynn, MA 01901 Tel: (978) 985-0285, (978) 944-3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US 티칭 프로  
 Certified Course Examiner    공인 코스 심사요원  
 sj.usgtf@gmail.com

**857.600.6755**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전혀 미처 알지 못한 영혼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로 새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영원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에 영혼을 살게 됩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찬양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혼교회 주일오후 12:30  
 속죄교회 수-주일 속죄회  
 영혼교회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3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97  
 www.growwithus.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 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위임을 받아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걸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hokp@koreainfo.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김 남희 초대전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3회 미술전  
2015년 10월 3일 - 10월 17일  
Reception: 10월 3일(토)오후 2-4



Lexington Arts & Craft Society  
13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화-일 12-4, 토 10-4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이지나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과보나  
변호사

Yeon Wa  
변호사

박계영  
변호사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http://www.suhlad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25,000  
Sharon, MA  
4 Beds, 2 Baths, 3901 sf.  
\$25k price reduction  
2 family or bonus space  
이현주 401-935-3307



\$369,000  
Sharon, MA  
3 Beds, 1 Bath, 1426 sf.  
Finished basement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07



\$364,900  
Braintree, MA  
3 Beds, 1.5 Baths, 1200sf.  
Great Location!  
편이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07



\$728,000  
Lexington, MA  
3 Beds, 1.5 Baths, 2100 sf.  
편이업그레이드 된 집  
조성한 주거환경, 좋은 학교  
제니스리 978-806-0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 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mp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69,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58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0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I Park 617-304-7001

Condo Townhouse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1,300  
Lexington, MA  
1 Bed, 1 bath, 725sf.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75,000  
Boston, MA  
5년된 샌드위치 스토어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0023

Condo Rental  
\$2,7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 Lee 781-654-5281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다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b>Restaurant</b>  \$479,000 <b>Cambridge, MA</b> Center of Harvard Sci.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q.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275,000 <b>Boston, MA</b>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Lee 781-654-5281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Salem, MA</b>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b>Restaurant</b>  \$499,900 <b>Brookline, MA</b> Coolidge Corner 권역의 근처 Restaurant & Liquor 5000 sq.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Business Consulting</b>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J Park 617-304-7001	<b>Commercial</b>  <b>커머셜 건물 투자</b> SJ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센트럴 스퀘어, 하버드 스퀘어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b>병원건물</b>  \$860,000 <b>Worcester, MA</b> 6552 sq. 38대 주차공간 Un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b>Coin Laundry</b>  \$55,000 <b>Brookline, MA</b>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9,900 <b>Newton, MA</b>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Sushi Bar</b>  \$90,000 <b>Newton, MA</b>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19,000 <b>Norwood, MA</b>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0	<b>Restaurant</b> \$290,000 <b>Somerville, MA</b> Famous Restaurant, As-is SJ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440,000 <b>Boston, MA</b> Well-Established, As-is SJ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2,600,000 <b>Dedham, MA</b> Legacy Place Center Sue Bong Tsai 617-792-8642
<b>Restaurant</b> \$490,000 <b>Boston, MA</b>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b>Full Plant Cleaner</b> \$260,000 <b>Chelmsford, MA</b>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8,000 <b>Cambridge, MA</b> 하버드 스쿼드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지역, 가격수를 원하는 조건에 맞춰 도와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싱싱한 생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일, 생굴과 생우디, 한치외무침과 배운양까지

**스시와 롤:**  
싱싱생어, 혼마구로 참치, 스프리치 셀몬, 히마리, 장어, 생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폭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열스톤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 37 September 18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304

스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는 곳

## 아이 러브 스시 (I Love Sushi)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617 492-4655  
http://ilovesushi7080.wix.com/ilovesushi

Welcome, **304** 한국 방송 3시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간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어의 특별한 장점

회비를 비교해 보세요  
10 TV/22 채널 시청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청  
5시간도 못보도 말고 24시간 시청 무한대 시청

방송3시와 케이블 함께 계약  
한국채널 7개를 시청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캠프리지 포터스퀘어 역 옆 레슬리 대학 건물 안에 위치한 스시 바 '아이 러브 스시'는 말 그대로 스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많은 단골 손님들은 이 스시 집을 '아이 하트 스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주인 김소라 사장에 의하면 "간판에 러브 대신 하트 모양이 있어 손님들이 하트라고 불러온 것 같다"고 말했다.

리팝이라는 음식은 말 그대로 캔디 롤리 팝의 모형을 지니고 있어 여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메뉴 중 하나다. 또한 바깥이 오일로 덮여있어 낮은 칼로리 및 다이어트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알려져 있다.

문을 받고 서빙까지 하여 손님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김 사장은 "아마 주인이 주문 받고 서빙까지 하는 곳은 자기뿐일 것" 이라고 웃음을 지었다.

레슬리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이 곳은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스시 롤이나 사시미를 먹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곳이며 보통 20분 이상 머무는 손님이 드물다.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롤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와일드 파이어(Wild Fire) 롤이다. 와일드 파이어 롤은 스파이스 튜나와 마늘이 섞여 매운맛을 맛볼 수 있는 메뉴 중 하나다.

'아이 러브 스시'는 현재 20년 넘게 레슬리 대학 건물 안에 위치되어 있으며 세월이 지나도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다.

'아이 러브 스시'의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 까지다.  
jham@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예배 10시, 달남목사 유영민

bgabc.org

40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6.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특히 점심시간에는 워낙 바빠 투고를 하는 회사원들과 수업을 듣기 전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가는 학생들이 바글바글해 마치 일본 스시 바의 모습을 재연하곤 한다.

의 연두색과 주황색이 조합되어 일식의 분위기를 한층 더 느낄 수 있다.

'아이 러브 스시'의 메뉴에는 연인들을 위한 음식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 러버스 롤(Lover's Roll)과 Lover's Boat가 연인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다. 러버스 롤은 하트 모양으로 롤이 만들어지며 검은색 김 대신 핑크색의 소이 빈 종이로 덮여 더 귀여운 모습의 롤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어서 스시 롤

'아이 러브 스시'는 주인 김소라 사장이 직접 주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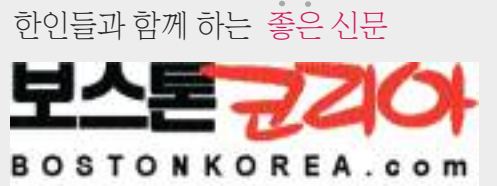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청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네)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25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골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진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퀵시온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894-1127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세탁소에서 프레스 구합니다.  
네틱지역.  
T. 508-655-5004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케임브리지 초초스  
T. 617-792-5497

레딩에 있는 폴리쉬드네일샵에서 함께  
일할 자격증 소지자 구합니다.  
T. 978-898-7953, 603-401-1581

하버드스퀘어 드롭스토어 매니저, 테일  
러, 뒷일, 카운터 오후 파트타임.  
(학생환영) T. 617-233-0779

**세탁소 구인**

카운터, 프레스로 일하실 분.  
브룩클라인, 자메이카 플레인  
무경험자 환영, 경험자 우대

연락처. 617.216.2703

우스터지역 세탁소에서 일하실분.  
카운터 및 배킹, 프레스 도와주실 분.  
T. 508-735-3136

캠스포드 지역 세탁소에서 프레스 2명  
/테일러(영어 가능) 구함.  
T. 603-401-0113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스,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N[그로서리 매 매]**  
그로서리 매매코저 합니다  
Hot Food, 델리, 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저 합니다.  
T. 501-753-1691

**N[매 매]**  
마사지가게를 매매코저 합니다.  
테네시주 75번 선상 56가.  
트럭스탑옆에 있음.  
T. 404-820-4525, 423-568-2150

**N[급 매]**  
콜롬버스 조지아 지역  
오토수선, 컴퓨터자수  
드라이크리러 픽업  
10만불 - 5만 9천불로 조정  
T. 706-330-1978

**N[구 인]**  
조지아 애틀란타에 있는 신세계  
Cafe&Bar에서 여자 바텐더를 구함.  
가장 좋은 조건에서 일할수 있음.  
(커미션지급)  
한인상권 중심지, 단골손님 많음.  
T. 917-535-5409

**N[패션 디자이너 구인]**  
-패션/그래픽 디자이너 를 원합니다  
-파트타임, Duluth 지역  
-한국어와 영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합  
니다.  
T. 224-392-4209  
224-251-8805

**JANE'S SALAD & BUFFET**

**SERVING  
SUSHI, SALAD & ASIAN FOOD**

781-698-5227, 617-204-1053


274 FRANKLIN ST.,  
BOSTON, MA 02110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 '그녀는 예뻤다' 흥미진진 관전 포인트 3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그녀는 예뻤다'가 마침내 베일을 벗는 가운데 시청 포인트를 공개해 보는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16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그녀는 예뻤다'는 주근깨 뽀글머리 '역대급 폭탄녀'로 역변한 혜진(황정음 분)과 '조절정 복권남'으로 정변한 성준(박서준 분), 완벽한 듯 하지만 '빈틈 많은 셰시녀' 하리(고준희 분), 베일에 가려진 '뜯기충만 반전남' 신혁(최시원 분), 네 남녀의 재기발랄 로맨틱 코미디를 그리는 드라마다.

### 엔드르핀 상승 시키는 '역대급 캐릭터'들의 결정체

'그녀는 예뻤다'는 기존 드라마들에서 떠올리기 힘든 강한 개성으로 무장한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이다. 사춘기 시절 역변을 겪으며 역대급 폭탄녀가 된 취업 장수생, 모델 포스 풀풀 풍기며 독설을 날리는 워커홀릭 부편집장, 완

벽한 듯 하지만 사실은 빈틈 많고 허당인 초미녀 호텔리어, 알송달송한 웃음을 날리며 분위기를 압도하는 패션 에디터까지 '그녀는 예뻤다'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살아 숨쉰다.

### 최고의 케미 군단

'그녀는 예뻤다'에는 '믿고 보는 배우' 황정음을 필두로 박서준, 고준희, 최시원, 황석정, 김하균 등 상큼발랄한 매력과 탄탄한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특히 주연을 맡은 황정음과 박서준은 앞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킬미, 힐미'에 이어 두 번째 호흡을 맞추게 되어 기대를 모은다. 유쾌함부터 진지한 카리스마까지 연기 스펙트럼을 한층 더 넓힌 최시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눈과 귀에 찰싹 달라붙는 센스 만점 '찰떡 열연'을 선보이고 있다.

'코믹 연금술사'들이 뭉쳤다,

### 유쾌한 진짜 '코믹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는 '지붕뚫고 하이킥', '고교 처세왕' 등의 작품에서 유쾌한 필력을 인정 받은 조성희 작가와 '드라마 페스티벌-불온', '나야 할머니'를 통해 섬세하면서도 트렌디한 감각을 선보인 정대윤 PD가 이끄는 드라마. 조성희 작가와 정대윤 PD, 여기에 로맨틱 코미디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황정음까지 합세해 에너지 넘치는 유쾌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성희 작가와 정대윤 PD는 숨은 첫사랑을 찾는다라는 기본 틀 안에 달콤하면서도 이슬아슬한 4각 로맨스를 더해 설렘과 웃음이 가득한 '진짜' 코믹 드라마를 선보인다는 각오다. 짜임새 있는 드라마 구조와 로맨틱 코미디에 잘 어울리는 영상미, 캐릭터에 최적화된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올 가을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것이다.

aluem\_chang@news1.kr



## '객주', 켄(錢)내 나는 한판이 시작됐다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장사의 신-객주 2015'가 신명나는 켄(錢)의 전쟁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KBS2 새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 - 객주 2015'(극본 정성희 이한호/연출 김종선) 제작발표회에는 김종선 연출과 장혁, 유오성, 김민정, 한채아, 이덕화, 박은혜, 문가영이 참석했다.

'장사의 신-객주 2015'는 폐문한 천가 객주의 후계자 천봉삼이 시장의 여러꾼으로 시작해 상단의 행수와 대 객주를 거쳐 마침내 거상으로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1979년부터 총 1465회에 걸쳐 서울신문에 연재됐던 김주영의 역사소설 '객주'를 원작으로 조선 후기 보부상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생생하게 펼쳐낼 예정이다.

'장사의 신-객주 2015'는 돈을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돈을 잘 버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김종선 PD는 "요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현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5년 하반기 쏟아져 나오는 사극 속에서도 '장사의 신-객주 2015'의 경쟁력으로 "재미가 없으면 흥행은 어렵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드라마의 불거리는 돈을 두고 욕망

을 드러낸 인물들의 엇갈린 운명이다. 천봉삼과 길소개의 대립, 여기에 매월과 조소사가 더해진 얽히고 설친 러브라인도 빼놓을 수 없다. 천봉삼 역을 맡은 장혁은 "그동안 보여드린 사극 속 캐릭터와 달리 천봉삼은 조금 더 해학적인 모습이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힘들고, 안좋은 모습도 보여질 것 같다. 천봉삼은 그 안에서 정석을 지켜가면서 밝고 재미있는 인물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사의 신-객주 2015'는 두 배우의 연기 포부를 펼쳐내기 좋은 현장을 만들어냈다. 김종선 PD는 "배우가 재미를 느끼고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을 때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배우들이 캐릭터 소화를 위해 3배 이상 연구하고 연습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 이상 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김종선 PD의 말에 따르면 배우들이 얼마나 캐릭터 소화를 위해 노력했는지 가늠하게 했다. 그 노력이 시청자를 사로잡을 큰 힘으로 드라마의 자신감을 더했다.

사극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덕화, 장혁, 유오성의 조합. 여기에 이미 이야기와 흥행성을 인정받은 '객주'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장사의 신-객주 2015'의 자신감을 엿보게 했다. 켄을 두고 펼쳐지는 이들의 전쟁이 얼마만큼 흥미롭게 펼쳐질지 기대감을 모았다.

poolchoya@news1.kr

## 밴드 혁오, 아이유와 깜짝 듀엣 무대 '추억 선사'

(서울=뉴스1스타) 박건욱 기자 = 밴드 혁오와 아이유의 듀엣 무대 영상이 공개됐다.

하이그라운드에는 17일 오후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공드리' 라이브 영상을 게재했다.

이번 영상에는 최근 상수동의 한 카페에서 혁오와 아이유가 즉흥적으로 진행했던 라이브 공연 중 하나인 '공드리' 무대가

담겨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혁오의 '22' 앨범에 수록된 '공드리'를 함께 부르고 있다.

이 공연은 혁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가을 바람 부는 날 공연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즉흥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함께 공연할 뮤지션을 찾던 중 동갑내기인 아이유와 뜻이 맞아 선사됐다.

kun1112@news1.kr



## 조정석 주연 '특종 : 량첸살인기' 10월22일 개봉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연애의 온도' 노덕 감독의 차기작이자 조정석 주연의 '특종 : 량첸살인기'가 오는 10월 관객들과 만난다.

16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화 '특종 : 량첸살인기'는 오는 10월22일 개봉된다.

'특종 : 량첸살인기'는 연쇄살인 사건에 관한 일생일대의 특종이 사상초유의 실수임을 알게 된 기자 허무혁(조정석 분)이 견잡을 수 없는 상황속, 그의 오보대로 실제 사건이 발생하며 일이 점점 커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특종 : 량첸살인기'는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예측불허 스토



리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우연한 제보로 잘못된 특종을 터트린 기자 허무혁 역을 맡은 조정석은 생동감 넘치는 연기와 친근한 매력으로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여기에 무력을 압박하는 인물들로 이미숙, 이하나, 김의성, 배성우, 김대명, 태인호 등 연기

파 배우들이 가세해 강한 존재감을 발산,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애의 온도' 제작자와 감독으로 흥행을 이끈 한재림 감독과 노덕 감독이 2년 만에 다시 의기투합하여 영화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킨다.

aluem\_chang@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5년 9월 7일 ~ 9월 13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5.8%
2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24.4%
3	SBS	드라마스페셜(용팔이)	19.2%
4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17.0%
5	KBS1	KBS9시뉴스	16.1%
6	MBC	무한도전	14.8%
7	MBC	주말드라마(엄마)	14.1%
8	MBC	일밤(복면가왕, 진짜사나이2)	13.5%
9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13.3%
9	MBC	아침드라마(이브의사랑)	13.3%

##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2	SBS	드라마스페셜(용팔이)
3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4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5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6	SBS	SBS월화드라마(미세스캡)
7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8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9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10	KBS2	일일드라마(다잘될거야)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레옹	박명수, 아이유
02	겁 (Feat. 태양)	송민호
03	맏소사	황태지
04	스폰서 (\$ponsor)	으뜨거파시
05	Lion Heart	소녀시대
06	오빠자	인크레더블
07	멋진헛간	오대천왕
08	Dumb Dumb	Red Velvet
09	거북선 (Feat. 팔로알토)	자메즈
10	I'm So Sexy	댄싱게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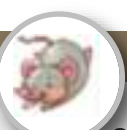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8			4		2
5		1			6			
	9				2		7	1
			7			2	4	
3				8				9
	1	2			4			
2	6		1				3	
			6			9		8
4		9			3			

9월 20일 - 9월 26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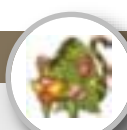
### 쥐띠 |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

● 운수: 새롭게 계획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세요.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고 경사가 있겠습니다. ● 금전: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 때입니다. 커다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이 성사될 것입니다. ● 애정: 그동안 보여주었던 것이 상대의 본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2, 25일 길일. 24, 26일 주의.



### 소띠 | 믿고 따라가야

● 운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무리하게 일을 밀어붙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투자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 애정: 지금은 상대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히려 의심의 마음으로 들춰내면 시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1, 26일 길일. 20,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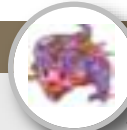
### 범띠 | 등글등글한 처세를 해야

● 운수: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구상도 하면서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집니다. ● 금전: 천천히 진행시키도록 하세요. 매매나 거래는 시간을 끌수록 이익이 따를 것입니다. ● 애정: 누군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매사 등글등글한 처세를 해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4, 25일 길일. 20, 26일 주의.



### 토끼띠 |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 운수: 협력자가 나타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공적인 일보다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보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교체비로 인한 지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화려하게 펼쳐질 애정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짙어집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0,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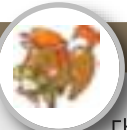
### 용띠 | 때가 무르익지 않았으니

● 운수: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도리어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 금전: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할 뿐입니다. ● 애정: 다정스런 말 한 마디 건네주기를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다른 반응이 오니 실망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1, 23일 길일. 20,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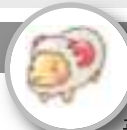
### 뱀띠 | 다음에 시도하도록

● 운수: 동업이나 특히 친인척간에 하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금전: 투자문제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니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매는 미루고 다음에 시도하도록 하세요. ● 애정: 화가 화를 부르고 그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화가 넓어지면 결국 힘든 것은 자신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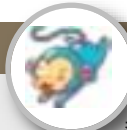
### 말띠 | 에너지를 주는 비타민과 같은

● 운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고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쉽게 일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 나가는 때입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고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애정: 부부에게 서로에 대한 믿음은 함께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에너지를 주는 비타민과 같은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3,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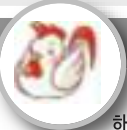
### 양띠 |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고

● 운수: 직장에서의 일이 좋아집니다. 상사나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황된 욕심을 부리거나 과소비만 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 애정: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어왔던 끈은 끊어지고 새로운 끈과 연결되게 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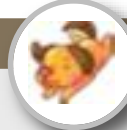
### 원숭이띠 |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서

● 운수: 이사하고 싶은 충동이 강해집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지나친 욕심이 있으면 도리어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 애정: 애써 믿어보지만 그럴수록 점점 의심은 커집니다. 마음이 웬지 모르게 초조해지고 아무리 잊으려 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군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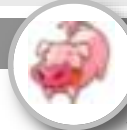
### 닭띠 | 계획대로 척척 풀려나가기

● 운수: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로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어 가는 때이니 마음이 안정됩니다. ● 금전: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척척 풀려나가기 금전적인 이익 또한 크겠습니다. ● 애정: 비 운 뒤에 맑게 갠 하늘처럼 어려움을 헤치고 평화를 갖게 됩니다. 더욱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 개띠 |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 운수: 크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나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발전에 발전을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금전: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면 잘 풀리지만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일은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애정: 짝사랑이나 쉽지 않은 인연을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 돼지띠 | 실생활에 소홀히 하기 쉬운

● 운수: 지금은 내가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가까이 해야 합니다. ● 금전: 욕심이 나 포부가 너무 크면 사소한 일이나 실생활에 소홀히 합니다. 생각 없이 지출 하다가는 금전적으로 어려워집니다. ● 애정: 내색을 하지 않는 모습 뒤에 감추어 있는 그 마음을 무시하다가 분명한 후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4일 길일. 20, 26일 주의.

# 나영석 '신서유기' 2천만 뷰 돌파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강호동과 이승기, 은지원, 이수근의 '신서유기'가 조회수 2천만 뷰를 돌파했다.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단독 공개되고 있는 '신서유기'는 12일 오후 3시 현재 조회수 2천200만(예고편, 제작발표회, 본편 합산)을 기록하고 있다.

제작발표회 영상을 제외하고, 제작진이 공개한 예고편(조회수 527만)과 본편(조회수 1천553만)의 조회수 만으로도 2천만을 돌파, 나영석 PD가 목표치로 밝힌 '2천만 클릭'을 가뿐히 넘어섰다.

특히 이 같은 조회수는 지난 8월 25일 1차 예고편을 공개한 이후 3주가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세운 기록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향후 최소 10개 클립의 본편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3천만 돌파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 중국 내 단독 공개 플랫폼인 포털 'QQ'에서도 조회수 1천만을 넘어서며 순항 중이다.

나영석 PD는 목표치를 달성한 것에 대해 "예상보다 빨리 달성하게



돼 매우 기쁘다.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게, 보다 재미있는 콘텐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서유기'는 클립당 5~10분 내외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짧은 분량,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공개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이버 집계 결과, '신서유기'는 모바일로 재생한 비율이 PC보다 높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시청했다. 특히,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간편하게 즐기는 팝콘 예능'이 시청자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다.

tvN의 디지털 콘텐츠 브랜드 'tvN go'의 하반기 첫 프로젝트인 '신서유기'는 '서유기'라는 스토리텔링에 이색 게임으로 재미를 더하고, 4명의 예능 강자들을 투입하며 맛깔나는 인터넷 예능으로 탄생, 플랫폼을 넘나드는 tvN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네이버 PC와 모바일 TV캐스트를 통해 단독 공개된다.

reddgreen35@news1.kr



## '응팔' 헤리, 쌍팔년도 불량 여고딩으로 변신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응팔'의 여성 출연진 헤리, 이세영, 이민지가 1980년대 고등학생으로 완벽 변신했다

tvN 새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의 스틸 컷이 16일 처음으로 공개, 그때 그 시절 여고생을 똑같이 재현한 이들의 모습이 촌티와 풋풋함 사이를 오가며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공개된 이미지에서 헤리는 드라마 콘셉트에 맞춰 다소 투박한 단발머리에 고등생 통큰 향아리 바지로 80년대 복고 패션을 완성해 눈길을 끈다. 그 옆에 교정기를 긴 채 하늘색 난방에 빨간 스카프와 가방을 매치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이민지와 체크무늬 난방과

분홍색 난방을 겹겹이 입고 백팩을 맨 이세영 또한 그 시절 여고생들의 유행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연달아 큰 히트를 치며 복고열풍을 일으킨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에 이은 '응답하라' 시리즈의 3번째 작품. 2015년판 '한 지붕 세 가족' 으로, 1988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그린다. 우리 고향, 우리 이웃을 담아내며, 아날로그식 사랑과 우정, 평범한 소시민들의 가족 이야기로 향수와 공감 살 계획.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이다

reddgreen35@news1.kr

## 샤킬오닐, 추성훈과 몰래 커닝 '나란히 오답'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샤킬오닐이 추성훈의 영어 답을 커닝했다.

샤킬 오닐은 지난 15일 밤 11시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에서 팝송 '슈즈 콘' 을 듣고 가사를 받아 적는 영어 수업에 참여했다.

이날 샤킬 오닐은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나오자 짝꿍 추성훈의 답을 커닝했다. 이에 추성훈은 짝꿍을 위해 직접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진행된 답 확인 시간에 강남은 샤킬 오닐이 오답을 적는 것을 알고 "오 마이 갓" 을 외치며 그를 놀

려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샤킬오닐 추성훈 훈훈하다", "샤킬오닐 추성훈 둘 다 틀렸겠네", "샤킬오닐 추성훈 의외로 잘 어울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공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이 National Grid와 Eversource보다 싸질 수 있습니다

이제 메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tailer로서 현재 미국 18개주에 있는 70유일리티 구역안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xoomenergy.com](http://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LP Xoom Partner 이선호 대표

**781.266.7245**

한국어 상담 : 이선호 지사장 / [energy@acn-xoom.com](mailto:energy@acn-xoom.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008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박사후세출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c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맥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2. 보스톤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300,000**
3.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5. 약세사리 카트 : 큰 물안에 위치함. 보스톤 북부. 안정적인 수입. **\$55,000**
6.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교.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2,950**
8.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Unit 2, Brighton. 4 Bed 2 Bath 2,379 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1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그 '칠흙 같은 어둠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어찌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있을까. 그저 삶에서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고설킨 모습이 인생이지 않을까 싶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모두 편안히 사는데 나 자신만 어려운 일은 혼자 뒤집어 쓰고 사는 느낌이 들 만큼 견디기 힘들 때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겪지 않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인생에서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던, 가족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자식 문제가 되었던 분명 누구에게나 다른 색깔과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감당하기 힘든 일에 허우적거릴 때 또 다른 버거운 일이 겹쳐서 온다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 틈조차 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더 크게 눈덩이 굴러오듯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쉬이 던질 말이 아닌 것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어느 집이나 기분 좋은 자랑거리가 더 부풀려서 칭찬해주면 기분 좋지만, 남의 어려운 일에 걱정 반 구경 반처럼 저 집은 또 저렇게 어려운 일이

겹쳐서 자주 생기네! 하는 식의 얘기는 그 당사자에게 도움은커녕 아픔과 고통만 더 가중시킬 뿐이다.

한국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의 파산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으로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특별히 뭐라 해줄 말도 없지만,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도 쉬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누누이 얘길 해주지만, 큰일을 겪는 친구에게 얼마만큼의 위로가 될까 싶다. 그렇다고 내가 친구에게 무슨 경제적인 도움을 편안하게 줄만큼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만 안쓰러움에 있을 뿐이다. 그저 친구가 이 고비 잘 넘기고 몸과 마음 잘 챙기며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다.

또한, 지금 내 입장이 그 친구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것은 아니다. 나 역시도 어려운 고비를 넘고 넘어 온 때가 있었다. 아니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세 아이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 다행이라 여겨지지만, 큰 녀석이 태어나서 심장병으로 고생해 엄마의 가슴이 찢기는 아픔이

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10여 년 전 갑상선암의 건강의 적신호를 받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진다. 그렇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정말 못 살 것 같은 때 죽을 것만 같은 위기의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塞翁之馬)'라고 하지 않던가. 지금의 어려움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어려움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기 때문이다. 또한, 미리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서기에 살면서 설령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비가 온 후의 땅이 더욱 단단해지고 굳어진다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처럼 삶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있지 않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것은 내 일과 네 일이 따로 아니고 네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고 내 일이 네 일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듯 세상만사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돌고 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펼쳐진 일들이 실빛 한 점 들지 않는 칠흙

같은 어둠이고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듯싶은 때가 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놓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때에도 온 우주 만물은 쉬없이 흐르고 있기에 그 어두운 기운마저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둠이 끝이 아님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빛을 만날 기다림인 까닭이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찌 칠흙 같은 어둠을 지나지 않고서야 여명의 빛을 만날 수 있겠으며, 밝은 새 아침을 맞을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온다. 그렇지만, 그 위기로부터 다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장 눈앞에 놓인 일들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진 삶을 맞이하고 두려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다. 그렇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시간은 찾아온다. 그 '칠흙 같은 어둠의 의미'는?!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환점인 것이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목욕탕집 남자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고온다습高溫多濕이었다. 한동안 보스톤 날씨가 그랬다. 덥기도 했는데 습한건 못견디겠다. 녹진할 적엔 열탕熱湯이 피서법중에 하나다. 습한 날씨를 가을이 데려갔다. 연전에 회사일로 일본을 방문했을 적이다. 전통일본여관에 묵게 됐다. 온천이 딸린 꽤 유서 깊은 여관이였다. 저명한 인사들이 몇몇 묵고 갔다던가. 가와바타 야스나리도 소설을 집필하면서 묵었다고 했으니 말이다. 내게는 꽤 인상적이었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내 돈내고는 묵을 수 없다. 무지 비쌌으니 말이다. 한창 성수기에는 오성급 호텔숙박료보다 더 비싸면 비쌌지 싸지는 않았을 터. 여관 출입구 문지방을 넘어섰다. 일본 옷을 곱게 차려 입은 여주인이 마루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들어서는 우리 일행을 향해 머리숙

여 깊히 절했다. 슬리퍼를 신는 일을 도와주었으며, 환영한다는 말을 입에 담은 듯 싶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인게다. 다음날 아침 미모의 여주인은 아침상을 받은 우리일행 식사를 보살폈다. 국을 퍼주고, 밥을 건네 주고, 이것 저것 챙기더라. 그런데 여관에 묵으며 더 좋았던 건 실내의 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것이었다. 더운 야외 온천에 몸을 담구는 일은 저 으기 반갑기만 했던 거다. 게다가 방문했던 곳은 덥고 후덥한 지역이었으니 말이다. 몇년후 다시 일본 그 여관을 방문했다. 있어야 할 야외 온천은 폐쇄되어 있었다. 무슨일이 있었던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이 서늘하다. 지진으로 온천이 막혔단다. 하긴, 온천은 화산과 지진 다발 지역에 있는 것 아니던가. 일본에 태풍이 몰아쳤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에 희생자가 많

은 모양이다. 위로를 보낸다. 온천은 더운곳에서 온천도 즐길만 하다만, 눈 오고 추울 적에도 환상이다. 한 겨울엔 눈이 많이 오던 산골에서 살 적이다. 인디언들이 월동越冬하던 온천을 경험한 적이 있다. 눈보라는 쳤는데 물은 찰찰 끓었다. 몸을 뜨거운 물에 담귀 폭 삶아냈다. 물속에서 나와 맨몸뚱이에 찬 눈을 맞는 것도 또다른 즐거움이었던 거다. 열탕은 계절과 무관하지 싶다. 목욕탕집 남자들. 오래전 텔레비전 연속극 제목이다. 첫 장면이던가. 아들, 사위, 손자를 데리고 온탕溫湯안에 앉아 있던 목욕탕집 남자 모습이 그럴 듯해 보였다. 목욕탕에 아들과 같이 간 아버지는 보통 아이들을 온탕/열탕에 들어오게 꼬여낸다. '뜨거워?' '아니, 안 뜨거워' '정말이지?' '그-럼.' 먼저 온탕에 앉은 아빠가 어린 아들과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일게다. 헌데, 나와 내 선친과는 반대였다. 내가 먼저 온탕에 앉아 얼굴이 벌게 질 때가 되면, 선친은 물으셨다. '뜨겁냐?' '아뇨, 시원해요' '너는 별스럽기도 하다. 그 뜨거운 텔 어떻게 들어 앉아 있냐?' 선친은 내 체질

을 당신이 주셨으면서도 황당해 하셨던 거다. 어구구구, 가벼운 탄성이 새어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발부터 담그셨다. 행여 당신몸에 화상이나 임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말이다. 내겐 아마 뜨거움을 느끼는 인자가 덜 발달되어 있는 모양이다. 아무리 씻어도 내장까지는 다 씻어낼 수 없잖아요? (나태주, 목욕)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갔을 적에, 아버지의 작은 등을 밀어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거린다. 아마 한 두번은 밀어드렸지만, 효자노릇 한번 했던가. 내 아이는 나를 따라 목욕탕에 갈 것인가. 아니면, 녀석이 제 아비를 모시고(?) 찜질방이라도 가려할까? 덕분에 녀석의 다 큰 몸을 다시 흘깃이라도 쳐다 볼 수 있을 것인가? 목욕탕안에 부자父子가 될 수 있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요한 13:10)

# 빌스전을 앞둔 패트리어츠가 준비해야 할 것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주 NFL 시즌 개막전에서 강적 스틸러스를 상대로 28 대 21로 기분 좋게 승리한 패트리어츠가 이번 주에는 버팔로 빌스를 상대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다. 빌스에는 패트리어츠와 오랜 기간 동안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던 뉴욕 제츠의 렉스 라이언 감독이 새로 부임했다.

패트리어츠가 속한 AFC 동부지구 는 시즌 개막전부터 평균 전력이 가장 상승한 지구로 여겨졌다. 막상 시즌이 개막하고 보니 AFC 동부지구 팀들은 개막주간 경기를 모두 승리하여 4팀이 모두 1승 0패를 기록 중이다.

이번 주에 패트리어츠가 상대하게 될 빌스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팀이다. 2000년 이후 빌스전 상대 전적이 26승 4패로 패트리어츠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만 라이언 감독의 새로운 빌스는 쉽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빌스전을 앞둔 패트리어츠가 신경써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짚어보자.

### 러닝 공격과 페이크 동작

라이언 감독은 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감독으로 유명하다. 라이언 감독이 이끄는 빌스는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다.

1주차 콜츠와의 경기에서 빌스는 극단적인 블리츠 전술을 구사했다. 53번의 스냅 중 25번, 무려 47.1%의 수비 기회에서 블리츠 전술을 사용했다. 패스 수비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쿼터백을 흔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블리츠를 사용한 것이다.

빌스가 패트리어츠를 상대할 때도 극단적인 블리츠를 사용할 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라이언 감독은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를 흔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빌스의 적극적인 수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브래디의 손에 만의 존하는 단조로운 공격이 아니라 러닝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페이크 동작을 많이 사용하여 다채롭게 공격을 구사해야 한다.

### 러닝 수비 강화

1주차 경기에서 패트리어츠는 스틸러스의 러닝 공격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스틸러스의 주전 러닝백이 출장 금지 처벌을 받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패트리어츠는 러닝을 대비할 수 있는 수비 선수들을 쉬게 하고 패스에 대한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빌스전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패트리어츠는 디펜시브 라인의 전면에 나설 7명이 적극적으로 러닝 수비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한 패트리어츠가 렉스 라이언 감독의 버팔로 빌스를 상대한다

에 가담해야 한다. 지난 경기에서 빌스는 쿼터백이 19번만 패스를 시도하고 36번 러닝 공격을 시도했다. 그 결과 빌스는 AFC에서 강한 팀으로 손꼽히는 콜츠를 상대로 승리했다.

라이언 감독은 수비에서는 거칠고 적극적인 전략을, 공격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러닝 공격을 선호하는 감독이다. 패트리어츠가 빌스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스틸러스전을 준비할

때와는 다르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스크린 플레이

앞서 언급했듯이 빌스는 패트리어츠를 상대로 공세적인 수비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블리츠를 상쇄하기 위해 러닝처럼 보이는 패스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해법이 스크린 플레이를 이용한 패스다.

패트리어츠는 와이드 리시버들을

활용한 스크린 플레이에 능한 팀이다. 빠른 패스 이후 다른 리시버가 스크린을 해주는 사이에 풋볼을 받은 리시버가 필드로 치고 나가는 스크린 플레이는 줄리언 에들먼이나 대니 아멘돌라 같은 리시버가 능숙하게 구사한다.

수비수들이 쿼터백을 잡기 위해 돌진하면 스크린 플레이를 막기 어렵다. 패트리어츠는 이 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jsi@bostonkorea.com](mailto:jsi@bostonkorea.com)

## 2015 년 제5회 뉴잉글랜드 대학연합 친선골프대회

제5회 뉴잉글랜드 대학연합 친선골프대회를 오는 10월3일 (토요일) 오전 11:30에 Stow에 위치한 Stow Acres Country Club, South Course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각 대학 동문 및 재학생들의 친선도모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강대학교 동문회가 주최한 작년 대회에는 총 11개 대학동문 44명이 참석하여 친목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연세대학교 동문회(회장 김준구)가 주관하며, 시상 및 상품은 골프 초보자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푸짐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고국 대학은 물론 미국대학 동문 및 재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일시 :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1:30 (Tee Off 12:30)**  
**장소 : Stow Acres Country Club, South Course**  
 58 Randal Rd, Stow, MA 01775, Tel: 978.568.1100  
**참가비 : \$100 (카트, 간식 및 저녁식사 포함)**  
**참가신청 : 각 대학 동문회장 또는 김준구: email/stevekimeagle@gmail.com Tel: 617.448.7156**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6. 체로키의 눈물의 길 (2)

체로키족의 수난 (계속)  
체로키족도 백인들의 폭력과 협박에 못이겨 1836년 말까지 약 6천명의 체로키족이 인디언의 땅으로 이주하였으나 나머지 1만6천명의 체로키족은 끝까지 버텼다. 많은 미국의 양심적인 백인들은 일부 강제이주에 찬성하는 소수의 체로키족 대표들만이 서명한 '뉴에코타 조약(Treaty of New Echota)'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회에 대하여 체로키족의 강제이주를 집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예를 들면, 1838년 4월 23일,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매사추세츠 콩코드 출신의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잭슨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틴 밴 뷰런(Martin Van Buren)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체로키 족에 대한 엄청난 불법 행위를 행사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런 대통령은 윈필드 스콧(Winfield Scott) 장군에게 강제 이주 작전을 지휘하게 했다. 스콧은 약 7,000명의 병역을 이끌고 5월 17일 뉴에코타에 도착했다. 약 17,000명의 체로키 인디언과 체로키족이 소유하고 있던 약 2,000명의 흑인 노예들은 살던 집에서 끌려나와 캠프에 수용되었다. 대부분은 짐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다. 캠프로 끌려온 인디언들은 몇 개의 무리로 나누어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강제이주의 길에 올랐는데, 특히 전염병이 창궐하는 한여름과 겨울 추위 속에 이동했던 인디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강제이주의 험난했던

길을 훗날 사람들은 '눈물의 길 (Trail of Tears)'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눈물의 길' 은 앞으로 계속될 인디언들의 고난의 '길' 의 시작이었다.



(눈물의 길(Trail of Tears) 안내판)

눈물의 길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다. 눈물의 길에 동행했던 미국인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엘리저 버틀러(Elizur Butler)는 캠프에서 2,000명, 이주 도중에 2,000명이 죽었다고 추정했다. 그래서 총 4,000명이라는 숫자가 자주 인용되게 되었다. 눈물의 길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이야기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1987년에 '눈물의 길 국립 역사의 길(Trail of Tears National Historic Trail)' 을 지정했다. 이 도로는 9개의 주에 걸쳐 있으며, 길이는 총 3,540km에 달한다. 2009년에 미국 의회는 과

거의 '인디언 부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에 대해 '미국을 대신하여 원주민에게 사죄한다' 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일등병 계급의 한 젊은 미군 병사로서 눈물의 길을 따라갔던 버네트(John G. Burnett)는 1890년 12월 11일에 그의 80회 생일을 맞아 그의 자손들에게 눈물의 길에 관한 회고담을 들려주었다. 그 회고담에는 눈물 없는 읽기 어려운 정도의 슬프고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가 들려준 사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테네시 주에서 태어나 숲에서 짐승을 사냥하고 개울에서 낚시하면서 원시 자연의 품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인근의 체로키 인디언들과 어울리면서 체로키 말도 익혔다.

세월이 흘러 말단 군인이 된 나는 체로키 말을 할 줄 알았기에 1838년 5월 인디언 강제이주 작전에 통역병 보직으로 명령을 받아 역사적인 끔찍한 눈물의 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나는 아무 죄 없는 체로키족들이 미군의 총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자기네 집에서 붙잡혀 나와 강제로 우리 속으로 수용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찬 이슬비가 내리는 10월의 어느 아침에 마치 소나 양처럼 645개의 마차에 실려서 서쪽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체로키족 아이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산속에 있는 그들의 집을 향해서 작은 손들을 흔들며 떠났다. 이 불쌍한 인디언

들의 많은 숫자는 담요도 없었고 신발도 못 챙긴 채 집에서 쫓겨 나왔었다.

특히 11월 17일 마지막으로 수용소를 떠나 이듬해인 1839년 3월 26일에 오클라호마에 도착한 체로키족의 경우 눈 폭풍과 영하의 날씨로 인하여 고통이 더 심했다. 이 강제추방의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다. 밤에는 불도 피우지 못하고 마차 위나 땅위에서 자야만 했다. 나는 하루 밤 사이에 추위 등으로 22명이 목숨을 잃는 것도 목격했다. 체로키족 추장인 존 로스의 부인인 Elizabeth "Quatie" Brown Ross는 그가 가지고 있던 단 한 장의 담요를 아픈 어린이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밤새 추위에 떨었다. 감기에 걸린 로스 부인은 폐렴으로 악화되어 1839년 2월 1일 세상을 떠났다. 나는 행군 도중에 체로키 부족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하여 일등병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아픈 아이에게는 내 외투를 덮어주기도 했다. 끔찍한 강제이주는 도중에 4000개의 무덤을 만든 후 1839년 3월 26일에 끝났다.

긴 행군 도중 딱 한 가지 불상사가 발생했다. 맥도날(McDonal)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차꾼은 성미가 포악하여 인디언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하고도 싸우게 되었는데 내한테도 채찍질을 해서 얼굴에 생채기를 내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손도끼로 기질을 시켜버렸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98 태권도와 김운용(8)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있을 때 사표를 낸 2005년 까지 계속되었다. 1986년 IOC위원이 된 김운용은 사마란치 위원장과 가까이 지내면서 서울올림픽 유치와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 등 수많은 협조와 지지를 받아냈으며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김운용 자신도 IOC 상임위원으로 요직의 분과위원장 및 1992년부터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IOC내에서 자신의 인맥도 구축하였다. 그 여세를 몰아 2001년에는 사마란치를 이어 제8대 IOC위원장 직에 출마하였다. 결과는 낙선되고 자크 로게(Jacques Rogge, 1942, 5, 2 ~)가 당선되었다. 김운용은 사마란치와의 친분과 그간 쌓아 놓은 위원들의 지지를 믿고 출마하였지만 유세 와중에 사마란치와 의견(아마도 그의 표현을 빌리려면 이것 또한 'Give & Take' 가 아니었을까?)이 맞질 않아 사마란치의 지지를 잃고 낙선하였다(김운용에 의하면 사마란치가 중도에 마음을 돌리면서 선거 유세 규칙도 개정하였고 자신의 손발을 묶어 놓아서 위원들에게 지지 서신 한 통 밖에 보내질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마란치는 로게와 함께 위원들이 가장 많은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했다고 한다). 그 후 김운용은 형제처럼 지내오면서 자신으로 인하여 한국

을 20여 차례나 방문했다던 사마란치를 이중 인격자와 기회주의자로 여러 매개체를 통하여 언급하였다(세계를 향한 도전 등). 다만 무슨 '딜 Deal' 이 어긋나서 돌아섰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이에 앞서 1999년의 솔트레이크 스캔들도 있었지만 살아났고 김운용의 세력은 IOC위원장 낙선 시기인 2001년부터 국제적으로 위축되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그의 퇴진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1999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유치위원회로부터의 항응과 금품 스캔들은 세계인들을 경악케 하였다. 하지만 김운용은 "IOC는 비밀결사대처럼 운영된다." "실제로 IOC위원들은 개인적 이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2012년 7월 1일자 Economy Insight - 김학준 기자 인터뷰) 면서 한 위원장의 잘못(?)으로 세상에 알려진 일이지 항응과 금품공세는 항상 있어 왔다고 했다. 사실 'IOC가 비밀결사대처럼' 아니라 비밀결사대의 하나라고 하는 측도 많다. 많은 전현직 위원들이 '프리메이슨' 과 이와 유사한 단체의 회원이기도 하다. 솔트레이크 스캔들은 김운용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의 특혜도 연관되어 있다(1999년 8월 4일자의 New York Times를 비롯한 모든

주요 일간지 참조). 그는 물론 아들이 키스톤 커뮤니케이션(Keystone Communications) 위성방송사 판매담당 부장이었고, 딸의 연주회도 '더 싸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그들이 IOC 위원들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었다.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뇌물 스캔들 와중에서도 김운용은 구사일생하였지만, 많은 위원들, 특히 김운용 인맥이 사퇴의 압력을 받고 IOC를 떠났다. 희대의 부정스캔들로 위원들의 체면을 구긴 IOC는 다행히 올림픽조직위원장 미트 램니(Mitt Romney)의 특출한 리더십으로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쳤다. 램니는 그 여세를 몰아 연고도 별로 없는 매사추세츠주에 와서 주지사에 당선되었으며, 2008년(경선 포기)과 2012년(경선 승리)에는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도 출마하였다.

142) 자크 로게는 벨기에인으로 세차례(1968, 1972, 1976)나 요트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했다. 1991년 IOC위원이 되었으며, 1992년 기사작위를 받았고, 2002년 백작으로 승작되었다. 2013년 까지 12년 동안 위원장으로 재임했다. 현재 IOC위원장은 독일인 토마스 바흐(Thomas Bach)이다.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직으로 체육계에 입문한 김운용은 곧 국기원을 건립하여 세계태권도인들의 단증발급을 총괄하였고, 세계태권도연맹(WTF)을 창설하여 국제스포츠기구 수장으로서 세계 무대에 발을 디뎠다. 그는 6개국어(러시아어는 예순이 넘어서 배웠다고 함)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그만큼이 가진 특유의 친화력과 인맥 쌓기로 자신의 입지를 넓혀 갔다. 그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는 뇌물(그는 선물이라고 한다. 또한 스포츠외교 무대에서는 양보할 것은 하면서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고유업무의 수행이라면 몰라도 '보통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항응과 선물 그리고 이권이 오간다면 뇌물이 아닐까?) 주고 받기를 좋아하였고, 결국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거금을 도와준 것 등이 빌미가 되어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때 구속되면서 그가 30년이 넘도록 쌓아 올린 위상이 밀바닥까지 추락하였다.

그는 1986년 부터 박종규의 뒤를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되었다. 그의 그 직책은 그가 2004년 구속되어 영어의 몸으로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뉴스코리아 김소라 972.247.9111 | weeple@newskorea.com

STAR ★ 동안  
피부과·성형외과

## 대한민국 1등 피부과·성형외과 (구, 이화성형외과)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

안면 거상술, 리프팅, 지방 흡입술, 지방 이식술을 잘하는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의원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안면거상술 (목포함)	상안검	하안검	절개쌍꺼풀	매몰쌍꺼풀	얼굴지방이식 (PRP포함)	코성형
700만원	8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80만원	1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20만원	120만원	110만원	80만원	150만원	240만원

-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아우르는 토탈 피부성형미용 원스탑 서비스
- 한국내 최초 항노화 전문 클리닉 개설 전문의 ● 성형수술 후 붓기케어 및 재생관리 서비스
- 모든 수술시 FDA 승인 받은 엄선된 정품 재료사용

Before & After



- 한국내 최신 레이저 장비 6대 보유
- 메디텔 케어 서비스 (호텔 내 병원 위치)
- 한국내 최초 수술보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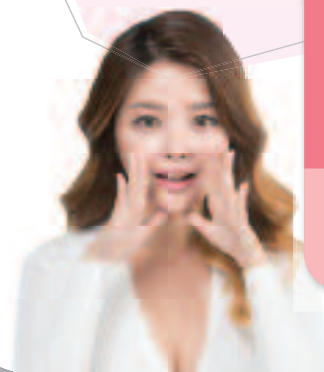
리본 뷰티메디컬그룹  
REBORN Beauty Medical Group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100%의 예술을 만듭니다!

## 리본성형외과

- 198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의료무사고 병원
- 최첨단 의료장비 3D 성형 시뮬레이션
- 1mm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시술

25년 무사고의  
가장 안전한  
병원!!!



쌍꺼풀  
매몰

120만원

90만원

쌍꺼풀+  
눈매교정

300만원

200만원

눈썹거상+  
하안검

360만원

280만원

한인들지 일컫는 좋은 커뮤니티  
보스톤코리아

T. 617-955-9112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이번 가을 내 마음의 텃밭에 잡초를 모두 뽑아버리자'  
-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XIV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신선했던 봄의 향기와 화려했던 여름의 열정이 슬금슬금 떠나가려하는지, 아침저녁으로 가을의 선선한 공기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봄에 씨앗을 뿌려 텃밭에 심은 채소들이 여름의 충만한 열기로 무럭무럭 자라나던 모습에 작은 행복을 느끼던 시간이 떠나가며, 결실의 가을을 받아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텃밭을 청소하지 않고 나두면, 다음 해 씨앗을 뿌리기 전, 여기저기 자라는 잡초로 골치가 아파진다. 만약, 귀찮다고 잡초를 뽑지 않고 씨를 뿌리면, 채소들은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 잡초의 번식력은 겉잡을 수 없이 강하고 빠르고, 일단 생기고 나면 완전히 없애기도 힘이 든다. 이러한 자연의 순리처럼,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도 마찬가지다. 떠나야 할 관계가 있을때, 보내야 할 관계가 있을때, 그 관계의 끝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를 잘 맺기가 힘이 든다. 상처가 주는 분노의 힘이 잡초처럼 강하고 질기기 때문이다.

배신감과 억울함의 분노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보내야 할 것을 보내지 못하면 집착이라는 끈끈한 거미줄에 걸려들게 한다. 허약해진 마음이 거미줄로 뽕뽕 묶이게 되면, 오도가지 못하며 생의 피해가 점점 커져간다. 결국, 결말은 처참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지쳐 미쳐버리든가, 약해진 마음이지만 정신을 추스려서 거미줄을 끊고 나오든가. 거미줄을 끊고 나와도, 한동안은 피흘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고통스럽다. 깊게 찢린 상처가 감염되지 않게 소독제를 뿌려야 하고, 상처가 너무 깊으면, 깊은 상처를 꼬매주어야 한다. 너무나 아프겠지만, 다른 관계를 빨리 갖지 말고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고 다른 관계를 가지면, 같은 패턴의 관계에 빠지기가 쉽다. 상처 준 이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아픔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움과 미움이 합해지면 미워하는 적대자의 동일화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로인해, 그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 상처

치유를 대신하려는 성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끝이 좋지않은 관계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조정하는 소시오패스(Socio-path), 심리 조정자(Manipulator)를 잘 파악하는 심안을 키워야 한다. 이사벨 나자레-아가(Isabelle Nazare-aga)는 자신의 책 '나는 왜 만날 당하고 사는걸까?' 을 통해 '심리 조정자를 크게 다섯 타입으로 나누었다. (1)교묘하게 사람을 무시하는 교양 넘치는 심리 조정자 (2)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독재적인 심리 조정자 (3)무슨 일이라도 해줄 것처럼 나서는 이타주의적인 심리 조정자 (4)수줍음 많은 척 심리 조정자 (5)자신의 매력과 친절함을 앞세우는 매혹적인 심리 조정자가 그들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들을 소시오패스로 진단한다. 놀랍게도, 현대인 25명 중 1명은 소시오패스라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시오패스가 상사가 되어 성공 할 확률이 네배나 된다고 한다 (Journal of Business Ethics 2008). 로버트 헤어 박사는 자신이 만든 PCL-R 을 갖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한 소위 '잘 나가는 사람' 100 기업의 최고급 임원 203명들을 대상으로 심리성향조사, 사이코 패스 식별 검사를 했다. 이들의 사이코 패스의 비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비슷한데,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Fortune,2010). 203명중 8-9명은 연구목적으로 사이코 패스 성향을 진단할때 사용하는 기준치를 넘어 설 정도였다.

그들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상대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 "넌 참 잘해." 라는 칭찬을 기가막히게 잘한다. 진솔하게 느껴지게 하는 호감과 함께 꿈에서나 나올법한 이상적인 사람이 주는 호감은 마치 소울 메이트를 만난 것처럼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만든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 하는지 잘 알고, 마음까지도 읽으면서, 자신의 거미줄에 걸려드는 먹이가 될 때까지 교묘하고 은근하게 유도한다.

이들은 겉으로 상냥하고 예의 바른 '친절한 사람' 의 가면을 쓰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대하는 사람이나 상황, 목적에 따라 가면을 바꾸며 자신의 실제 모습을 잘 감춘다. 그들의 마음에는 '양심' 이라는 '죄책감' 이 없기에, 내면은 매우 차갑고, 분석적이며 계산적이다. 마음에 드는 먹이감이 생기면, 먹이감으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타진해보고, 만약, 이익이 없어보이면, 한 순간에 시크해진다. 만약,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을 빛나게 해주는 악세사리가 될 가치가 느껴지는 상대가 나타나면, 그의 거미줄에 들어가게 하는 작업은 시작된다. 거미처럼 느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상대를 조정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오지 않으면, 그토록 열심히하던 그의 성의도 관심도 사라진다. 그의 호의를 믿고, 진실한 마음을 주었던 친구나 연인은 자신에게 그토록 특별했던 그가 냉정해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고민을 하게된다. 계속되는 그의 냉대를 느끼며, 자신의 능력, 장점, 인성을 의심하게 된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자신이 부족해서 놓친다는 생각에 더욱 최선을 하며, 자신의 권리, 필요, 욕구를 다 버리고, 그 한사람에게 매진하게 되는 것이다. '순진한 사람' 이 심리 조종자의 거미줄에 걸려들면, 자신의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삶의 피해와 손해를 보아도, 끝까지 그들 가면 속에 숨어있는 제 2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채 살아 갈 수도 있다.

드라마 작가 하명희씨는 '상류사회' 를 통해 순진과 순수의 차이를 명쾌하게 말해준다. 순진은 분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이용당하고 버려지기 쉽다. 순수하다는 것은 분순물이 하나도 안 섞인것이 아니라, 온갖 잡탕을 정제하고 단련시켜서 순수성이 되는 거다. 하 작가의 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이, 상처의 불순물을 잘 걸러내면, 더 순수한 자아가 생겨나게 된다. 마음에도 근육이 만

들어 진다.(공지영,'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2014). 순수한 마음에 근육까지 보강되면, 심리를 조정하는 소시오 패스를 빨리 알아차리는 심안이 발달된다. 소시오 패스에게 더 이상 당하는 삶이 아닌,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맑고 밝은 생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번 가을, 마음의 텃밭을 정리해보자.

중증마비로 뇌성마비를 겪으며 온 몸이 마비되어 입으로 쓰는 시인 김준엽씨는 '내 생애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를 써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의 시를 소개로 칼럼의 마무리를 대신하도록 한다.

<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39.99



본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됩니다. 케이블 방송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The Best On Demand은, TBO Play, On Demand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TBO Play, On Demand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TBO Play, On Demand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The Best On Demand, TBO

# KOREAN FOOD

# Coming to

# BO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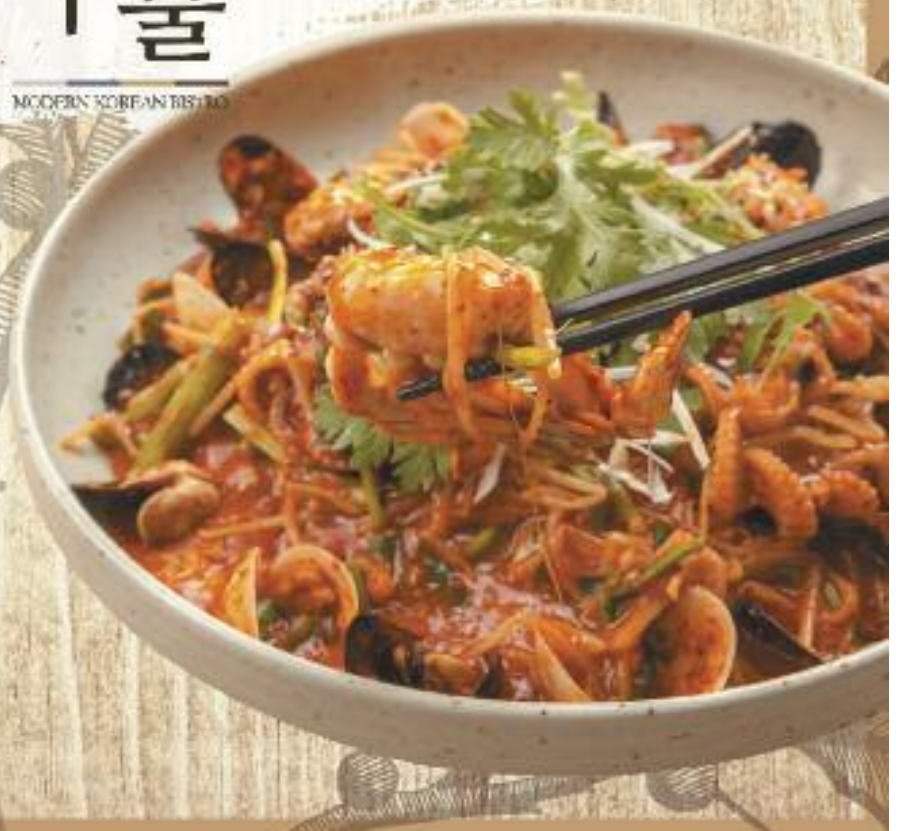
coming soon



Saint  
**AUGUSTIN**  
ASIAN CUISINE  
My FirstAsian Food



우리 음식과 술  
**수불**  
MODERN KOREAN BISTRO



**K FOOD BOSTON**  
프랜차이즈 및 기타문의  
617-304-7001  
KFoodBoston@gmail.com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99) 두려운 주식시장 폭락

며칠 사이에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걱정합니다. 걱정한 마음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한 판단과 결정은 대부분 잘못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실행하기 전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봅시다.

**중국:**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폐가치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500대 기업의 전체 수입 중 중국에서 번 수입은 단 2%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중국 시장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값싼 중국 제품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오일 가격 하락:** 한 배럴당 \$100하던 오일 가격이 \$40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일회사의 주가 가격은 내려가고 이익금 역시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회사와 트럭킹 회사엔 이익입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일로 소비할 돈이 빛

을 갚거나 투자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채무:** 그리스 정부의 부채 문제는 지난 10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파산한다고 해도 경제 규모는 미국 코네티컷 주 정부와 비슷합니다.

비관적인 소식과 함께 낙관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실업률:** 최근 실업률은 2009년 10%에서 5.3%로 떨어졌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비율은 15년 최저를 기록하며 평균 임금도 2.1% 증가했습니다.

**투자:** 최근 며칠 사이 은퇴자금이 약 10%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말에 \$100,000을 S&P 500에 투자했다면 최근 주식폭락에도 \$220,000으로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집:** 2007년 이후 집이 가장 활발하게 매매되고 있으며 모기지 빚은 2008년보다 무려 \$1.3 trillion이 적다고 발표(Federal Reserve)했습니다.

위의 정보와 함께 투자자 입장에서 몇 가지를 짚어봅니다.

일반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10% 하락했을 때 주식과 채권에 각각 50%씩 투자했다면 투자손실은 5% 하락입니다.

최근 주식폭락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난 6년 동안 주식에 투자했다면 자산이 많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한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주식전문가라는 사람도 주식시장이 언제 상승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단 며칠 동안 내 돈이 투자되어 있지 않으면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내려가기 전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가?”입니다. 처음부터 주식시장이 두려워서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려가는

시장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느 시점에 하락해도 장기 투자하면 반듯이 회복합니다. 금융위기(2009년)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70살 이상인 많은 투자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투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의학 발달로 100세까지 건강히 산다면 물가로 적어진 은퇴자금으로 30년이라는 장기간을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승한다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폭락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본래의 성격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투자자 하나하나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투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자 본인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개정된 영주권 신청절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9월 9일 이민국과 국무부는 작년 오바마 대통령의 ‘21세기를 대비한 이민개정’ 행정명령 실행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정된 영주권 신청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당장 이번 10월부터 시행되며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등 모든 이민절차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가 오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것과 영주권 신청 상황이 매달 우선순위 날짜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조금이라도 빨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초청 이민 또는 취업 이민의 마지막 단계는 이민비자 신청(신청자가 미국밖에 있는 경우) 또는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adjustment of status 또는 I-485)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비자신청 또는 I-485 신청은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되는 Visa Bulletin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신청시기가 결정됩니다.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가족초청신청서(I-130), 취업이민신청서(I-140),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 또는 투자이민신청서(I-526)가 신청된 날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는 이번 9월달의 가족초청 이민에 대한 Visa Bulletin(우선순위 날짜표)입니다.

Family-Sponsored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China-mainland born	India	Mexico	Philippines
F1	15DEC07	15DEC07	15DEC07	15NOV94	22OCT00
F2A	01MAR14	01MAR14	01MAR14	01FEB14	01MAR14

F1은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입니다. 위 표에 나와 있는 F1날짜는 2007년 12월 7일입니다. 따라서 위표에 의하면 이번 9월부터 2007년 12월 15일 또는 이전에 가족이민 신청서(I-130)를 신청한 사람이 이민비자 신청 또는 I-485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F2A)는 지난 2014년 3월 1일 또는 이전에 I-130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 이번 9월부터 이민비자 신청 또는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위의 우선순위 날짜우선순위 날짜표를 두개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Final Action Date)라고 불리는 표이고 다른 하나

는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Filing Date)라고 불리는 표입니다.

Final Action Date 표는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표와 거의 날짜가 비슷합니다. 반면, Filing Date 표는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는 기

존의 우선순위 날짜표보다 상당히 진전된 날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달 이민신청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새롭게 신청되는 이민신청서의 수, 현재 계류중인 이민신청서의 수, 그리고 거부, 포기 등 결정 전에 drop 되는 이민신청서의 수 등을 고려해서 매달 우선순위 날짜를 결정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위의 도표는 아래와 같이 쓰이게 됩니다.

**I-48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방식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10월부터 Final Action Date 표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이 표는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부와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상황을 Filing Date 표에 매달 반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가 여유가 생기면 바로 그 다음달은 통지를 통해 Final Action Date 표 대신 Filing Date 표(훨씬 날짜가 진전된)를 기준으로 I-485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 I-485와 달리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Filing Date 표에 나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Filing Date 표에 나와 있는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신청의 거의 모든 우선순위 날짜가 Final Action Date의 날짜들 보다 훨씬 진전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에 대한 결정은 Final Action Date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 날짜가 되어 발표됩니다. 하지만 신청준비와 신청을 지금보다 수개월 많게는 일년 이상 빨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번 개정은 보다 훨씬 신속하게 이민신청서들의 상황을 Visa Bulletin에 매달 반영합니다. 따라서, 매달 현실이 반영된 실질적인 우선순위 날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에게 문의 바랍니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 콜레스테롤 강력 신약이 나왔다는데, 문제는...

45세 이상 네 사람 중 한 명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고 한다. 핏속의 Bad 콜레스테롤(LDL)을 낮추기 위해서다. 의학적 정설은 LDL이 높으면 동맥혈관이 나빠져 스트로크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스트로크, 심장마비 등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800,000명에 이른다. 이는 사망자 3명 중에 한 명 꼴이 되는 계산이다. 따라서 중년에 들어서면서 LDL에 민감하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아울러 난생 처음 운동도 한다. 그런데 이런 자연치유 방법으로 LDL이 낮아지지 않는 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간에서 LDL을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 같은 약이 있다. 1996년 파이자 제약회사가 개발한 “리피톨”이었다. 리피톨(혹은 화학성분으로 스타틴 계열)은 LDL을 많이 낮출 뿐 아니라, Good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력을 갖고 있다. 제약 사상 가장 높은 판매 기록을 세워 한해 130억 불이라는 엄청난 실

적도 올린 해도 있었다. 그러나 물 좋고 정자 좋은데 없다고, 이 좋은 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근육통, 기억력저하, 수면장애 심지어 당뇨까지 유발하는 부작용으로 복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리피톨로는 LDL이 도저히 낮아지지 않는 환자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10여년 전 과학자들은 이런 환자들은 그들의 유전자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PCSK9이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변형되었다(mutate). 이 유전자가 만드는 PCSK9 효소는 활성화되어 있어, 간에서 LDL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핏속의 LDL이 높은 것이다. 이에 PCSK9 효소를 비활성화하게 하는 약을 개발한 것이다. Amgen 회사의 “Repatha”와 Sanofi 회사의 “Pravastatin”이다. 둘 다 주사약으로 2주마다 자신이 직접 주사하여 복용한다. 임상시험에 의하면 LDL 농도를 50-60% 까지 내리게 하고 심지어 거의 없게까지 할 수도 있는 강력한 콜레스테롤 저하 약이다.

이 약의 문제점은 약값이다. 주사약 한방

이 \$500을 넘어 일 년 치 약값이 \$14,000 이상 된다. 제약회사는 유전자가 조작된 산 세포에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약이 필요한 사람이 6-7백만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이다. 누가 어떻게 년 \$1,000억 불이나 되는 약값을 부담할 수 있는가! 제약회사간의 경쟁으로 \$250 억불 선으로 떨어진다 해도, 정부와 보험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약값의 가치가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콜레스테롤약의 진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심장질환의 치료와 예방 능력에 있다. 신약에 대한 검증에는 아직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비싼 약값으로 손 꼽히는 다른 약은 Gilead 회사의 Sovaldi로 C형 간염 치료 약이다. 한 알에 무려 \$1,000이다. 12주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이 \$88,000 된다. 2014년 한해에 Gilead는 이 약으로만 \$124억불의 매출을 올렸다. 보험회사와 특히 메디케어 재정에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이 약은 C형 간

염을 치료한다. 일회용이다. 따라서 \$88,000은 치료되지 않은 간염환자에게 들게 될 장기간의 의료비보다 훨씬 싸다. 이 약은 비싸나, 비싼 가치가 있다.

암 치료제 중에는 일 년 약값이 \$120,000 혹은 심지어 \$300,000 되는 약도 있다. 그렇다고 치유는커녕, 생명을 몇 달 연장하는 것이 고작이다. 암환자의 마지막 투병생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가격에 비하여 약 가치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약 처방을 거부할 수도 없다. 이런 고가의 약은 전체 처방수의 1%도 안되나, 약비용의 32%를 차지한다고 한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될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머지 않은 장래에 유전자 조작으로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약이 개발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싼통한 새약이 요구하는 엄청난 액수의 약값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약업체, 보험회사, 그리고 정부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파산법] 파산 그리고 새로운 시작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예전에는 파산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파산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최근에는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파산신고는 채권자(creditor)와의 조정과 합의를 통하여 빚을 갚거나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채무자(debtor)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제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파산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파산의 종류로는 흔히 법규 번호를 적용하여 Chapter 7, Chapter 11 그리고 Chapter 13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2014년 연방 파산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의 경우, 한 해 동안 접수된 파산건은 약 2만 8천건 가까이 되고 그 중 Chapter 7이 2만 3백여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뉴저지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파산신고는 Chapter 7입니다. Chapter 7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빚을 갚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Chapter 7은 채무자가 개인, 파트너쉽 혹은 회사일 때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빚의 양이나 채무자가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빚을 지게 된 채무

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 자체보다 지불 독촉이라고 합니다. Chapter 7을 신고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지불재촉(collection actions)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행동, 즉 채무소송을 한다든지, 지불을 빨리 하라고 전화를 한다든지, 임금을 차압하는 행위들이 중지되게 됩니다.

Chapter 7의 경우, 재산과 빚의 종류, 현재 수입과 지출, 재정과 관련된 계약이나 임대 등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법원에 채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에 파산 신고를 하고 21일에서 40일 정도가 지나면 채무정리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trustee)가 채권자 미팅을 소집합니다. 이 때, 채무자도 미팅에 참석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과 재산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합니다. 미팅 결과에 따라 법정 관리인(trustee)는 해당 케이스가 Chapter 7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 정보 요청 및 조사를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Chapter 11은 한국의 법정관리에 해당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회사나 파트너쉽이 주로 사용합니다. 파산상태의 기업이 생존을 위해 이용하는 제도로 지금 당장은 빚을 갚을 수 없지만 당장의 파산을 막아 기업이 회생한 뒤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긴급구조로 보시면 됩니

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며 채무자는 경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hapter 11을 신청한 기업 중에 실제로 빚을 갚을 정도로 회생하는 기업은 그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이나 사업가들 사이에서 Chapter 11은 한 번 파산하고 정리되었어야 할 기업을 억지로 살려두어 결국 두 번 파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Chapter 22”라고 불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hapter 11 파산 승인 심사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빚을 조정(Reorganization)하여 갚아나갈 수 있는 Chapter 11이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비교적 시간, 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여, 빚을 조정하여 갚아나갈 수 있는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로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hapter 13은 대개 일정 수입이 보장되는 개인 신청자가 약 3년에서 5년간 그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파산 법원의 승인 및 관리를 받도록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법에서 지정한 절차에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신고를 하기 180일 이전 기간 동안 지정된 신용관리 기관에서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을 받지 않으면 파산 신고를 할 수 없습

니다. 물론 긴급 상황이나 외진 지역으로 지정된 신용관리기관 자체가 근처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뉴욕이나 뉴저지 지역의 경우 그러한 예외가 적용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중장기의 계획을 세워 파산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산법의 경우, Chapter 7, 11, 13등 종류에 따라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채무자인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구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앞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소터(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드롭 보스톤서쪽(RT.2)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29,000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 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랜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 2015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기간: 11.21(토)~20(일)  
1. SAT I Class  
12월, 1월 시험대비 집중 프로그램  
-실전문제들이 중심의 수업  
-수업과 문제풀이의 총일 프로그램  
9:00-5:00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배분  
2. SAT II subject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3.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수업

### 학기중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1.기간: 9.05~1.16(2016)  
-4주 단위 등록  
-상시 등록가능  
-기술문제 풀이 중심의 집중코스  
2. 시간표  
9:00~12:00 실전문제풀이  
12:00~1:00 점심식사  
1:00~4:00 수업  
• SAT II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